하나된 힘, 더큰 미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두 개의 역사를 잇고



하나의 미래를 열다

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ouncil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소식 통합 제1호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OUNCIL News 2026 가을호

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소식
council.jeonnam-gwangju.go.kr
vo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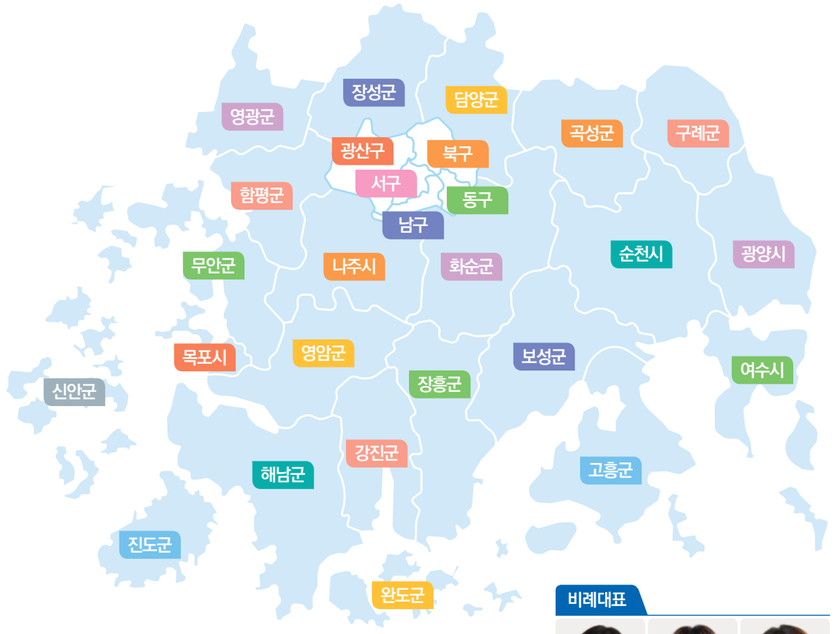
하나된 힘, 더큰 미래!

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ouncil

하나된 힘, 더큰 미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1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현황

전체 의원수	91명
더불어민주당	83명
국민의힘	1명
조국혁신당	2명
진보당	5명



목포시



최선국 목포1 더불어민주당 / 강성찬 목포2 더불어민주당 / 박문옥 목포3 더불어민주당 / 최정훈 목포4 더불어민주당 / 전경선 목포5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최동익 여수1 더불어민주당 / 서대현 여수2 더불어민주당 / 강문성 여수3 더불어민주당 / 주연창 여수4 더불어민주당 / 문갑태 여수5 더불어민주당 / 이석주 여수6 더불어민주당

순천시



오행숙 순천1 더불어민주당 / 한춘옥 순천2 더불어민주당 / 김정희 순천3 더불어민주당 / 김미연 순천4 더불어민주당 / 김진남 순천5 더불어민주당 / 신민호 순천6 더불어민주당 / 정희선 순천7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순천8 더불어민주당

나주시



이재창 나주1 더불어민주당 / 최명수 나주2 더불어민주당 / 양순봉 나주3 더불어민주당

광양시



임형석 광양1 더불어민주당 / 강정일 광양2 더불어민주당 / 서영배 광양3 더불어민주당 / 김장권 광양4 더불어민주당

담양군



박준엽 담양1 더불어민주당 / 김명우 담양2 더불어민주당

곡성군



진호건 곡성 더불어민주당

구례군



김송식 구례 더불어민주당

고흥군



송형곤 고흥1 더불어민주당 / 박선준 고흥2 더불어민주당

보성군



임용민 보성1 더불어민주당 / 강경윤 보성2 더불어민주당

회순군



하성동 화순1 더불어민주당 / 류기준 화순2 더불어민주당

장흥군



박형대 장흥1 진보당 / 윤명희 장흥2 더불어민주당

강진군



강광석 강진 진보당

해남군



김성일 해남1 더불어민주당 / 박성재 해남2 더불어민주당

영암군



이행도 영암1 더불어민주당 / 손남일 영암2 더불어민주당

무안군



고성석 무안1 더불어민주당 / 이정운 무안2 더불어민주당

함평군



모정환 함평 더불어민주당

영광군



박원종 영광1 더불어민주당 / 김강헌 영광2 더불어민주당

장성군



김수권 장성1 더불어민주당 / 정기성 장성2 더불어민주당

완도군



박재선 완도1 더불어민주당 / 조인호 완도2 더불어민주당

진도군



이현명 진도 더불어민주당

신안군



김문수 신안1 더불어민주당 / 최미숙 신안2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순화 비례 더불어민주당 / 박민영 비례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비례 더불어민주당 / 박진한 비례 더불어민주당 / 이은정 비례 더불어민주당 / 박정선 비례 더불어민주당 / 문애준 비례 더불어민주당 / 박 만 비례 더불어민주당 / 이오숙 비례 국민의힘 / 서영미 비례 조국혁신당 / 장성해 비례 조국혁신당 / 신연순 비례 진보당

동구



홍기월 동구1 더불어민주당 / 노진성 동구2 더불어민주당

서구



강수훈 서구1 더불어민주당 / 오미섭 서구2 더불어민주당 / 고경애 서구3 더불어민주당 / 심철의 서구4 더불어민주당

남구



노소영 남구1 더불어민주당 / 강원호 남구1 더불어민주당 / 임미란 남구1 더불어민주당 / 박상길 남구2 더불어민주당

북구



이숙희 북구1 더불어민주당 / 김건안 북구1 더불어민주당 / 안평환 북구1 더불어민주당 / 박수민 북구1 더불어민주당 / 허석진 북구2 더불어민주당 / 윤민호 북구2 진보당 / 임종국 북구2 더불어민주당 / 조석호 북구3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한귀례 광산구1 더불어민주당 / 이영순 광산구2 더불어민주당 / 이영훈 광산구3 더불어민주당 / 박필순 광산구3 더불어민주당 / 최경미 광산구3 진보당 / 이귀순 광산구4 더불어민주당

vol.1

미래!

CONTENTS

council.jeonnam-gwangju.g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소식

2026 AUTUMN + **통합 제1호**







발행일 2026년 10월 통권 제1호

발행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발행인 송형곤 의장

편집인 위광환 사무처장

주소 (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광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전화 062-613-5054

홈페이지 council.jeonnam-gwangju.go.kr

기획·편집 디자인그룹美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소식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다양한 정보를 연 4회에 걸쳐 편집·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웹매거진과 전자북(e-book)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구독신청 062-613-5056

하나된 힘, 더큰 미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SNS 채널

누리집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0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개원식**

010 **창간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형곤

열린 의회

012 **특별시민이 바라는 의회**

소통 의회

014 **의장단 소개 및 의정 활동 포부**
의장 송형곤
부의장 조석호
부의장 김문수
의회운영위원장 신민호
원내대표 강문성
대변인 김진남
수석 부대변인 이숙희

028 **두근두근특별시**
예술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가?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섬의 오늘을 만나고, 미래를 그리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책임 의정

040 **주요 안건 처리현황**
제1·2회 임시회, 제3회 제1차 정례회

044 **5분 자유발언**

051 **위원회 활동 및 위원장 포부**

126 **정책토론회**

133 **조례웹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137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52 **창간호 퀴즈 이벤트**

153 **2026 연간회의 운영계획**

오월 정신 품고
통합의회의 첫걸음을 내딛다

대한민국 첫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제1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대한민국 최초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출범과 동시에 '0시 본회의'를 열어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처리한 데 이어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5·18민주묘지 참배

제1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소식통합1호(가을호)

0시, 새로운 의회의 시간이 시작되다

7월 1일 0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출범과 동시에 본회의를 열었다. 대한민국 첫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통합의회는 첫 본회의를 통해 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며 320만 특별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새로운 의회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국립 5·18민주묘지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5·18민주묘지 참배



5·18민주묘지 헌화

첫걸음은 '오월'에서

송형곤 초대 의장을 비롯한 통합의회 의원과 사무처 간부 공무원 등 160여 명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참배단은 추모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추모했다. 동시에 전남과 광주가 하나 된 힘으로 상생과 대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통합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새긴 것이다.

오월정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송형곤 의장은 방명록에 다음과 같은 다짐을 남겼다. "오월정신으로 대한민국 첫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 이어 "오월정신은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의 출발점"이라며 "전남과 광주가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의회가 먼저 화합과 소통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남겼다.

320만 특별시민과 함께 만드는 첫 페이지

'0시 본회의'로 시작해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로 이어진 통합의회의 첫날. 그 시작에는 대한민국 첫 통합특별시라는 의미만큼이나 중요한 약속이 담겼다. 광주가 지켜온 민주주의의 가치와 전남이 함께 만들어온 공동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 더 큰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이제
320만 특별시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잇고
지역의 더 큰 도약을 만들어가는 '통합 의정'의
첫 페이지를 써 내려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 발언 모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단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인사



하나된 힘, 더 큰 미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형곤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새로운 의회의 틀을 세우고, 통합특별시가 마주한 여러 현안을 살피며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생각을 시민 여러분과 나누고자 의회 창간호 소식지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의회는 국립의대 신설을 둘러싼 지역의 의견을 모으고, 통합특별시의 새 행정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요 현안을 살펴왔습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도 넓혀왔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여건과 요구를 고르게 살피고, 전남과 광주의 다양한 목소리를 특별시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가는 일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창간호에는 제1회 임시회부터 제3회 제1차 정례회까지의 의정활동과 의원들의 정책 제안, 현장 의정, 시민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의회의 논의와 결정이 시민의 삶과 이어지는 만큼, 그 과정과 결과를 알기 쉽게 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제1대 의회의 구호는 '하나된 힘, 더 큰 미래!'입니다. 전남과 광주가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모으고, 지역마다 다른 목소리를 의정에 고르게 담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주요 활동과 정책 논의를 충실히 전하며, 시민의 기대에 걸맞은 의정으로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 형 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 특별시민이 의회에 바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320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새롭게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무엇을 바라는지, 통합 전남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행정과 재정의 혼선이 없도록 안정적인 통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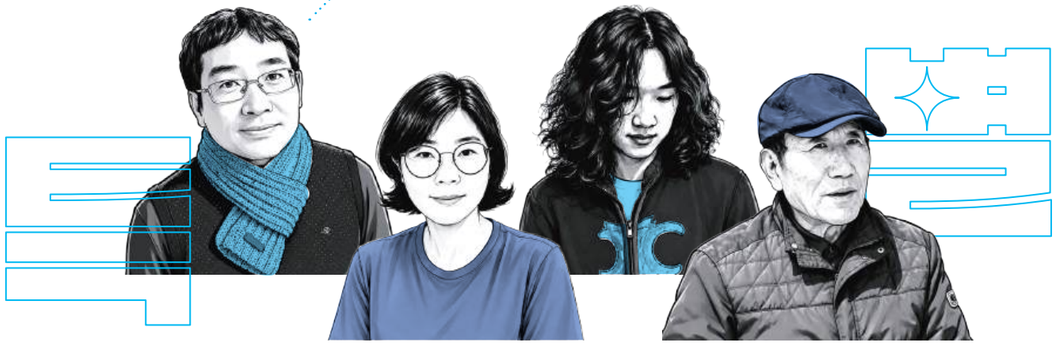
〈**김도형** • 전남광주 동구 • 김도형세무회계사무실 운영〉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만큼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통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행정과 재정의 혼선을 꼼꼼하게 살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이나 각종 지원 제도가 달라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의회가 조정 역할을 잘 해줬으면 합니다. 통합의 성과를 서둘러 보여주기보다 하나씩 안정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통합특별시

〈**최지웅** • 전남광주 남구 • 대학 2학년생〉

통합특별시가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많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지 않도록 취업과 주거, 자립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김선님** • 전남광주 북구 • 중고생 세 자녀의 엄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아이 교육하기에 좋은 도시가 됐으면 합니다. 전남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급식과 방학 중 돌봄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는 곳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통합의회가 잘 챙겨주길 바랍니다.

광주 농촌도 통합의 혜택을 함께 누리길

〈**김영** • 전남광주 광산구 • 농업 종사〉

저는 광산구 하산동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농촌 지역이지만, 그동안 행정구역이 광주다 보니, 전남 농업인들과 비교해 농업 관련 지원이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통합이 된 만큼 광주에서 농사짓는 농업인들도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농업 현실을 잘 살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가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소멸 대신, 사람이 찾아오는 농어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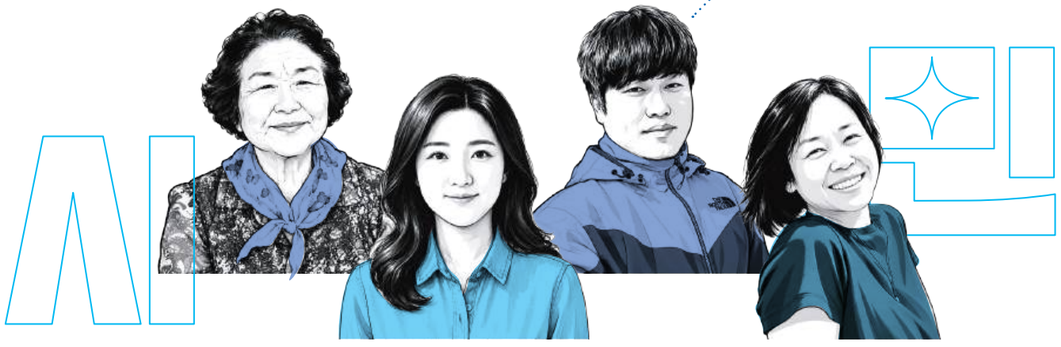
〈**김화옥** • 전남광주 고흥군 • 농어업 종사〉

요즘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는 작은 마을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외지에서 세 가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니 분위기가 활기가 있고, 노인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외지에서도 찾아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드는 데 의회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치료와 돌봄의 격차가 없는 통합특별시가 되도록

〈**이해신** • 전남광주 나주시 • 사회복지사 근무〉

저는 정신건강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행정구역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를 줄여 일반 시민들과 장애인, 취약계층 등 누구나 필요한 복지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회에서도 정신장애인과 가족,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섬 박람회를 계기로 전남광주가 함께 성장했으면

〈**강금화** • 전남광주 여수시 • 직장인〉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여수를 찾게 되는 만큼, 여수만의 행사가 아니라 광주와 전남 전체를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자원을 서로 연결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우는 통합특별시가 되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통합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회가 꼼꼼하게 살펴주길 바랍니다.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길

〈**김복님** • 전남광주 담양군 • 토마토농장 운영〉

통합특별시가 커진 만큼 지역마다 사정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의회가 책상에서만 정책을 만들기보다 농촌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의장단 소개 및 의정 활동 포부



큰 가능성을 하나의 힘으로,
시민 곁의 의회로

통합의 첫 기준을 세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송형곤

Interview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특별시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통합의 첫 의회인 만큼 앞으로의 방향을 세우고, 지역과 시민을 아우르는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도 중요해졌다. 전남과 광주의 강점을 하나로 모으는 동시에 지역 간 균형과 시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과제다. 초대 의장은 90명의 의원과 함께 통합의 원칙을 세우고,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 후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통합특별시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일입니다. 조직과 재정, 제도를 정비하고 특별법 보완부터 미래산업과 일자리까지 중요한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속도만큼 원칙이 중요합니다. 전남과 광주, 동부와 서부, 도시와 농어촌 어느 한쪽의 목소리도 작아지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반도체와 AI 등 미래산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방의회법 제정과 특별법 보완에도 힘쓰겠습니다. 초대 의회가 세우는 기준이 앞으로의 기준이 된다는 책임감으로 90명의 의원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Q2 초대 의장으로서 통합의회 출범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남과 광주가 각자의 강점을 하나의 힘으로 모아 더 큰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남의 에너지·산업 기반과 광주의 AI·연구·인재 역량을 연결하면 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통합은 어느 한쪽이 얻고 다른 한쪽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강점을 키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의회는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의료·교육·교통 등 통합의 성과가 특별시 곳곳에 고르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Q3 지역 간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 의회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광주와 전남, 동부와 서부, 도시와 농어촌의 서로 다른 요구를 조정하고 해법을 찾는 일입니다. 통합했다고 해서 모든 생각이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이를 대립과 분열로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균형발전 역시 모든 지역에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은 키우고 부족한 것은 채워 어느 곳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우리가 통합했는가'를 되새기며 통합의 힘이 갈등보다 크게 작동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Q4 어떤 의회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어떤 의회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의장 한 사람이 돋보이는 의회가 아니라 91명의 의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대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는 곳을 먼저 찾고 작은 목소리도 세심하게 듣는 시민과 가까운 의회가 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날 시민들께서 "통합하길 잘했다. 초대 의회가 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충분합니다.

Q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요?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맞서 지역이 스스로 힘을 모아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결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기업과 일자리가 늘고 의료·교육 격차가 줄어 도시와 농어촌 어디서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320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길을 제대로 열어가겠습니다.

의장단 소개 및 의정 활동 포부

존중과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상생 의회

서로 다른 목소리를 하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부의장

조석호

Interview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새롭게 출발했다. 서로 다른 지역과 세대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나로 모을지가 통합의 중요한 과제다.
부의장은 90명의 의원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시민을 위한 일에는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걱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전남과 광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요즘 부의장님께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전남과 광주가 지역발전의 대명 아래 급하게 통합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통합을 온전히 이해하고 전남·광주가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통합특별시가 자리 잡기 위해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통합 시의회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대의를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통합 초기인 만큼 시의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90명의 의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전남 광주의 상생과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Q2 광주와 전남에서 활동해 온 91명의 의원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어떤 의회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서로 다른 지역과 세대를 대표하는 91명의 의원이 모인 곳이 의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해 하나가 된 의회의 모습으로 집행부와 협치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회 문화를 만들고 싶고, 차이는 존중하되 시민을 위한 일에는 하나로 힘을 모으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Q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어떤 의회로 다가가길 바라시는지, 통합시의회를 지켜보시는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의정활동을 하며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도 통합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더 시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 인재 유출과 인구감소, 지역 소멸 등 우리 지역에 드리운 심각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하나하나 풀어가야 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지역의 목소리가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통합의 성과가 시민의 삶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가 함께 발전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Q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요? 그 이유는?

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상생 의회'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남과 광주가 각자 지닌 장점을 나누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통합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서로 다른 지역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하나로 모아, 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길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단 소개 및 의정 활동 포부

첫걸음 뗀 통합특별시의회,
소통과 현장으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차이를 넘어, 320만 시민과 함께 '첫걸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부의장

김문수

Interview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광역행정체계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 91명의 의원과 함께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초대 부의장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그는 "서로 다른 지역과 세대의 목소리를 존중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과 소통하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요즘 부의장님께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세 달 동안 업무보고와 예결산, 조직개편안 심의, 추석 명절 위문까지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든 만큼 320만 통합특별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가오는 10월 제4회 임시회 시정질문 준비에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민들 앞에서 시장님과 통합특별시의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시정질문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Q2 광주와 전남에서 활동해 온 91명의 의원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어떤 의회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전남과 광주는 40년간 서로 다른 행정 단위로 지내며, 도와 광역시라는 차이 속에서 서로 다른 행정·의정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가까운 지역이지만 오랜 시간 각자의 길을 걸어온 만큼 보이지 않는 거리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존중하면서 결국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전남과 광주 의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초·재선과 다선, 의장단을 잇는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Q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어떤 의회로 다가가길 바라시는지, 통합시의회를 지켜보시는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존경하는 320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 여러분, 저는 우리 의회가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합으로 행정 조직도 커지고 신경 써야 할 이슈도 많아졌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외되는 시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91명의 의원들과 함께 현장에 찾아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지방자치는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의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Q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요? 그 이유는?

'첫걸음'입니다. 320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91명의 의원들이 대한민국 제1호 광역행정통합의 완성이라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어두운 동굴 안에 있어 참고할 지도도 없습니다. 너무나 두렵지만 한편으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는 책임감과 자긍심으로 한 걸음 두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4년 뒤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기초를 쌓았다고 평가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단 소개 및 의정 활동 포부

통합의회의 새로운 길을 묻다

모두 함께 하나의 큰 바다로!



의회운영위원장

신민호

Interview

새롭게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통합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의회가 해야 할 일도 많다. 의회운영위원장은 무엇보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마다 다른 목소리가 의회 안에서 고르게 울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조례가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전남과 광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의회의 기반을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이다.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통합의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 온 의정지원 체계를 살피고, 현장의 불편과 개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정파와 상임위, 선수와 지역을 넘어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의회 운영에 고르게 반영되도록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Q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의회운영위원회가 맡은 역할과 책임도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의 핵심 과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입법·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의원별 관심 분야와 지역 현안에 맞춘 의정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각 위원회가 집행부를 충실히 견제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Q3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이번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가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의 추진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행부가 매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순천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동부권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며, 전남과 광주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통합의 성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Q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그 이유는?

'하나의 큰 바다를 향해 흐르는 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과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되 어느 한 곳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전남광주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통합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소통은 가깝게, 현장은 적극적으로

함께 걷는 의회, 시민 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원내대표

강문성

Interview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의회로 새롭게 출발했다. 서로 다른 지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통합의회의 중요한 과제다. 원내대표는 '동행'을 키워드로 소통과 현장을 중심에 두고, 광주와 전남이 함께 나아가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요즘 원내대표로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통합특별시의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광주와 전남의 의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지역 현안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직접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시·군·구의회와도 꾸준히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합의회가 단순히 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의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2 광주와 전남의 의원들이 하나의 의회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통합특별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통합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지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소통과 조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로서 특정 지역의 입장에 치우치기보다 광주와 전남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통의 해법을 만들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들이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요 현안은 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소통과 협력의 의회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Q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어떤 의회로 다가가길 바라시는지, 통합시의회를 지켜보시는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시민들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움직이는 의회'라고 느끼실 수 있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통합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는 기대와 함께 여러 걱정과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간 균형과 상생을 고민하면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저 역시 원내대표로서 소통에는 더 가까이, 현장에는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는 더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통합특별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요? 그 이유는?

'동행'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통합은 단순히 광주와 전남의 행정구역이나 의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의 목소리를 존중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를 넘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을 위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통합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와 전남이 함께하고, 의회와 시민이 함께하며, 현재와 미래가 함께하는 '동행의 의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Interview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과 함께 의회의 규모와 역할이 커졌다. 그만큼 시민과의 소통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도 중요해졌다. 초대 대변인으로서 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알리고, 통합의 성과가 시민들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요즘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재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 역할을 차분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 대변인으로서 의회와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민들께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지역과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살피고 있는지, 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제대로 알리는 것이 대변인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는 통합 이후 달라지는 행정과 제도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Q2 통합특별시의회가 시민들에게는 아직 다소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시민들이 궁금할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의견을 내면 제대로 반영되는 의회였으면 합니다.

통합으로 의회의 규모와 역할은 커졌지만 시민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이 어디에서 논의되고 어떤 결정이 이뤄지는지 알 수 있도록 의회의 활동을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가 의회에 고르게 전달되도록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

Q3 대변인이자 현장의 일꾼으로서 320만 시·도민에게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싶은 가치나 다짐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대변인이라는 이름보다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하는 일을 시민들께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의원들의 현장 활동도 제대로 알려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의원으로서는 통합의 성과가 시민들의 삶으로 이어지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꾸준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필요한 일을 하나씩 해내겠습니다.

Q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요? 그 이유는?

"큰 의회, 가까운 의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통합으로 의회의 규모와 역할은 커졌지만 시민들이 의회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이 넓어지고 현안이 많아져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이야기는 의회에 잘 전달하고, 의회의 논의와 결정은 다시 시민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의회가 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의장단 소개 및 의정 활동 포부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약속은 행동으로 지키겠습니다!

통합특별 시의회를 시민의 언어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수석 부대변인

이숙희

Interview

새롭게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 이후의 행정체계를 살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통합조례와 예산·결산 심의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5분 자유발언까지, 변화의 첫걸음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 것이다. 수석부대변인이자 현장의 일꾼으로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통합특별시의회가 그려가는 새로운 미래와 시민을 향한 약속을 들어봤다.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요즘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 1일 출범한 이후 세 달여 동안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각종 통합조례를 꼼꼼히 검토하고, 부서별 업무보고와 함께 통합 이후 행정체계를 살펴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9월 8일부터 18일까지 회기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심의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그동안 준비해 온 5분 자유발언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Q2 통합특별시의회가 시민들에게는 아직 다소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통합특별시의회가 아직 시민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행정을 꼼꼼하게 살피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통합이 되니 우리 생활이 달라지고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담고, 말보다 실천으로 신뢰받는 의회, 시민 곁에 늘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Q3 수석 부대변인이자 현장의 일꾼으로서 320만 시·도민에게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싶은 가치나 다짐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제가 시민여러분께 꼭 지키겠다고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행동으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의 답은 결국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작은 불편이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 드린 약속은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거창한 구호나 제도의 변화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고 일상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Q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요? 그 이유는?

통합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여는 '변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합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의회가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술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가?

제16회 광주비엔날레
16th Gwangju Biennale
9.5–11.15, 2026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
You Must Change Your Life

제16회 광주비엔날레가 광주의 가을을 예술로 물들이고 있다.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는 세계 각국 43인(팀)의 작가가 참여해 변화의 의미를 다양한 시선과 감각으로 풀어낸다. 작품을 따라가다 보면 예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만나게 된다.

권병준·박찬경 GB 커미션 신작 〈불림〉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You Must Change Your Life)'. 이번 비엔날레는 제목부터 조금은 도전적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고대 아폴로의 토르소' 마지막 구절에서 가져온 문장이다. 처음 들으면 다소 단호한 명령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전시장 안에서는 오히려 하나의 질문처럼 다가온다. 무엇을 바꿔야 할까? 삶의 방식일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일까? 예술은 우리의 삶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을까?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이러한 질문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과 예술적 실천을 선보인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 11월 15일까지 72일간의 여정

제16회 광주비엔날레가 지난 9월 5일 문을 열고, 오는 11월 15일까지 72일간 관람객을 맞는다. 올해 비엔날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 문화행사라는 점에서 한층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별시의회도 통합특별시 첫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 9월 4일 개막식에 참석해 비엔날레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으며, 광주비엔날레가 광주를 넘어 통합특별시가 함께 누리는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한 작가의 작품세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이번 비엔날레는 싱가포르 출신의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호추니엔 예술감독과 박가희, 브라이언 쿠안 우드, 최경화 큐레이터가 이끈다. 참여 작가와 팀의 수를 역대 가장 적은 43팀으로 줄이는 대신, 한 작가의 작품세계를 보다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는 '분자와 나', '신체와 결속', '풍경과 배움', '우주와 변화', '공기와 발화' 등 다섯 개의 주제를 따라 이어진다. 이번 전시가 말하는 변화는 거대한 사건이나 극적인 전환에만 머물지 않는다. 몸을 움직이는 작은 변화, 익숙한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 반복되는 일상의 습관, 다른 존재와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까지 폭넓게 펼쳐진다. 그 가운데 몇몇 작품을 따라가 보자.



니나 카넬 〈상동곡〉



모나 벤야민 〈낙원의 문제〉



장명희(오월어머니집) 〈추석 송편〉



강해중(오월어머니집) 〈나의 눈〉



박순금(오월어머니집) 〈꽃을 심다〉

보이지 않는 힘이 물질을 바꾸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작품 중 하나는 스웨덴 출신의 작가 니나 카넬의 작업이다. 독일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니나 카넬은 조각과 설치를 통해 물질과 에너지, 보이지 않는 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탐구해 왔다. 신작 〈상동곡〉에서는 초음파 진동으로 생겨난 물안개가 주변의 시멘트를 서서히 굳히는 과정을 보여준다. 함께 선보이는 연작 〈양극단의 중간지점〉은 수천 볼트의 전류가 지나가며 나뭇가지에 남긴 그을린 흔적을 다룬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과 물질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인간과 사물이 함께 적응하는 순간

정금형 작가의 〈재활 훈련〉에서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작가는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재활 보조 기구와 의료용 마네킹을 활용해 퍼포먼스와 설치를 선보인다. 전시장에 놓인 마네킹과 훈련 도구는 처음에는 그저 움직임의 대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약 3시간 동안 이어지는 퍼포먼스에서 작가는 재활치료사처럼 마네킹의 몸을 들어 올리고 지지하며 끊임없이 움직인다. 반복되는 동작 속에서 사람과 사물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진다. 사람이 사물을 움직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물의 형태와 움직임에 맞춰 사람 역시 움직임을 바꾸게 된다. 변화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변화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정금형 〈재활 훈련〉

가장 사적인 가족을 낯설게 바라보기

팔레스타인 작가 모나 벤야민(Mona Benyamin)은 가장 사적인 영역인 '가족'을 낯설게 조명한다. 단채널 영상 작품 〈낙원의 문제〉와 〈내일 또다시〉에는 작가의 부모가 등장한다. 부모는 서툰 영어로 역사적 기억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뉴스 진행자와 기상학자로 변신해 익살스러운 역할극을 펼친다.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 뒤에는 점령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의 현실이 놓여 있다. 작가는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변화의 의미를 보여준다.

광주의 어머니들이 그린 '기억'과 '나'

세계 각국 작가들의 작품을 따라가다 보면 뜻밖의 정겨운 그림들과 마주하게 된다. 오월어머니집 어머니들이 그린 작품이다. 전시장에는 장명희 어머니의 〈추석 송편〉, 강해중 어머니의 〈나의 눈〉, 박순금 어머니의 〈꽃을 심다〉가 나란히 걸려 있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국가 폭력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어머니들은 2022년부터 '기억하기', '나를 찾기', '연대하기'를 주제로 그림을 그려왔다. 행복했던 옛 기억과 가족과의 추억, 참혹했던 5월의 순간, 서로를 지지했던 연대의 기억까지 각자의 삶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어머니들이 그려온 약 320점의 그림과 인터뷰를 담은 출판물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의재 허백련과 춘설차가 보여주는 실천의 기록

광주의 역사와 자연, 예술을 연결하는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바로 광주를 대표하는 근대 화가 의재 허백련과 그가 일군 춘설차에 관한 기록이다. 남종문인화의 대가였던 허백련은 그림에만 머물지 않았다. 1947년 광주농업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고 '애천·애토·애인'의 삼애 정신을 바탕으로 농업과 예술, 자연과 배움을 연결했다. 전시장에는 그가 남긴 수묵 서화 작품과 실제 사용했던 다구가 전시된다. 관람객이 직접 춘설차를 마셔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예술이 삶을 바꾼다는 이번 비엔날레의 질문을, 오래전 광주에서 실천했던 한 사람의 기록을 만나는 자리다.



박찬경 〈만신: 만개의 영혼〉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전시투어

전남광주의 '쇠붙이'가 소리로 다시 태어나다

전남광주 지역 공동체의 참여로 완성된 작품도 눈길을 끈다. 권병준과 박찬경의 GB 커미션 신작 〈불림〉이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쇠붙이를 모으던 한국 무속 의례 '쇠걸립'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 작품은 전남광주 시민들이 직접 기부한 옛 냄비, 그릇, 장신구 등 사용하지 않는 금속 물건들을 활용했다. 한때 누군가의 부엌에 있었고, 누군가의 일상에서 쓰였던 물건들은 작가의 손을 거쳐 두드리고 흔들며 소리를 내는 장치로 다시 태어난다. 익숙한 사물이 낯선 존재로, 개인의 물건이 공동체의 소리로 바뀌는 과정은 '변화'라는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를 한층 생생하게 보여준다.

전시장을 벗어나 광주를 걷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를 더 즐겁고 생생하게 즐기고 싶다면,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눈여겨보자.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투어'는 양림동 곳곳에 자리한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10개 관을 도슨트와 함께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몰타, 일본, 페루, 폴란드 등 세계 각국의 동시대 미술을 전문 해설과 함께 만나보고, 더불어 양림동의 맛과 멋도 즐길 수 있다. 광주의 기억이 담긴 장소를 함께 걷는 '2026 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시민참여 프로그램 〈도시 기억의 변화〉'도 진행된다. 광주라는 도시와 동시대 미술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도보 투어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별 일정과 참여 방법은 광주비엔날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재 허백련 〈다로경권 목포여차〉

광주비엔날레의 성장과 지역 문화예술 지원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앞으로 광주비엔날레가 특별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더욱 세계적인 문화예술행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예술인과 문화단체의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일상 속에 문화예술이 더욱 가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들 개막식 참석 후 전시 관람



호추니엔 예술감독
제16회 광주비엔날레

"광주에서 변화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과 시민들의 저항을 통해 실제로 경험하고 만들어온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비엔날레 전시가 어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각자에게 질문을 남겼으면 합니다. 작품을 만나고 난 뒤 생각이나 감각,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그것 역시 변화입니다.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는 말도 명령이라기보다 '나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

누리집 | 인스타 | 입장권 예매

섬의 오늘을 만나고,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Island, Connecting the Ocean and the Future

미래를 그리다

2026. 9. 5.(토) - 11. 4.(수)

여수시 돌산 진모지구,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도, 금오도 일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지난 9월 5일 막을 올렸다. 오는 11월 4일까지 61일간 여수 곳곳에서 섬의 자연과 문화, 미래를 만나는 특별한 여정이 펼쳐진다.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을 중심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과 개도, 금오도 등이 전 세계 섬의 이야기를 만나는 거대한 무대로 변신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주제섬 360도 미디어파사드'

여수에서 펼쳐지는 전 세계의 섬 이야기

여수의 가을이 세계의 섬으로 물든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섬이 가진 생태 문화적 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살펴보는 세계 최초의 섬 박람회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로,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다. 전시부터 공연, 체험과 섬 여행까지 여수에서 펼쳐지는 섬 박람회 현장으로 떠나본다.

먼저, 돌산 진모지구에서 '섬의 미래'를 만나다

박람회 관람의 출발점은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이다. 진모지구에는 랜드마크 '주제섬'을 비롯해 해양생태섬, 미래섬, 문화섬, 보물섬, 국제교류섬, 식당마켓섬 등 8개 전시관이 들어섰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곳은 박람회의 상징인 '주제섬'이다. 주제섬은 가로 세로 40m, 높이 20m 규모로,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을 형상화한 건축물이다. 내부에는 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집약해 소개하는 전시물이 기다린다. 주제섬 외벽을 둘러싼 360도 미디어파사드도 색다른 볼거리다.

주제섬, 미래섬 등 총 8개 전시관 운영

'미래섬'에서는 첨단기술이 바꾸어갈 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실물 기체와 수소 선박 등 미래형 이동 수단과 해양기술을 만나며 '미래의 섬은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게 한다. 각각의 전시관에서는 섬의 자연과 생태, 역사와 문화, 세계 각국의 섬 정책과 미래 기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체험형 콘텐츠가 마련된 '보물섬'을 신나게 탐험하는 것도 좋다. 전시를 관람한 뒤에는 '식당마켓섬'에서 지역의 맛을 맛보는 것도 박람회를 알차게 즐기는 방법이다.

K-POP, 트로트 콘서트 등 공연 문화프로그램 가득

행사장 곳곳의 야외 공간과 열린무대에서는 박람회 기간 내내 다양한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세계·한국의 섬 테마존과 아트포토존, 실외정원은 전시 관람 중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과 산책 공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바다를 배경으로 한 3천석 규모의 열린무대는 박람회의 또 다른 중심이다. 세계 각국의 섬 문화를 소개하는 공연을 비롯해 K-POP과 트로트 콘서트, 거리공연과 퍼레이드, 섬쿠킹쇼 등 풍성한 공연이 펼쳐져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10월에 열린 '프라임콘서트 인 여수', 아이비와 박경림이 함께 한 'THE BIG SHOW', 재즈페스티벌 등은 박람회의 열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궜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조감도



전시관

1 랜드마크 '주제섬'
가로·세로 40m, 높이 20m 규모의 피라미드형 건축물로, 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미디어아트와의 환상적인 연출

4 미래섬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실물 기체, 수소 선박 등 친환경 미래 신기술과 스마트팜, 해양 에너지 기술을 직접 체험

2 해양생태섬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위기를 맞은 섬의 생태계를 직시하고, 멸종위기 동식물 모형 및 3D 큐브, 대형 모래시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

6 국제교류섬 7 8 식당·마켓섬
세계 각국의 섬 커뮤니티 정책을 공유하고, 섬 특산품을 스마트 쇼핑으로 만나보며, 세계 각국의 독창적인 섬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미식 코스

3 문화섬 5 보물섬(놀이터)
국내외 섬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주민들의 삶을 아카이빙하고, 아이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모험·어드벤쳐 놀이공간

야외공간

9 섬테마존 10 도시숲 정원 11 열린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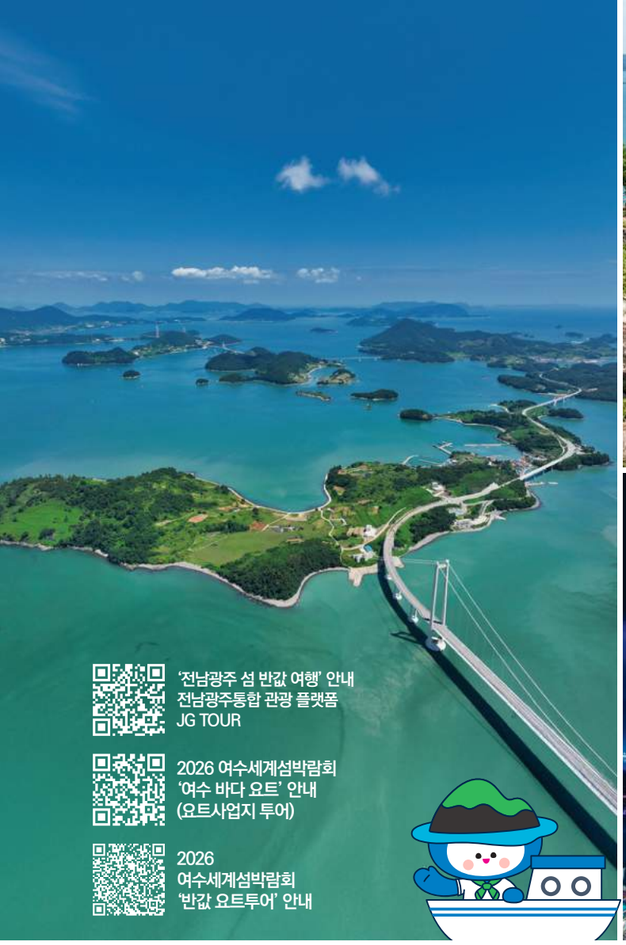


금오도 '비렁길 트레킹', '섬 힐링 밥상 체험' 등

주행사장을 둘러봤다면 이번에는 배를 타고 부행사장인 '개도'와 '금오도'로 떠나보자. 이번 섬박람회의 가장 특별한 매력은 전시장을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섬으로 떠나 자연과 사람을 만나고, 지역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오도에서는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비렁길 트레킹'이 기다린다. 푸른 바다를 곁에 두고 섬길을 걷다 보면 전시장에서 보았던 '섬의 가치'가 더 생생하게 다가온다. 디지털 스탬프 투어, 섬 힐링 밥상 체험, 명상 워킹 등 금오도의 자연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개도에서는 섬의 자연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섬섬캠핑'과 지역 작가와 함께 벽화를 그리는 '그래피티 전시체험', 감성공연 힐링 페스티벌 등을 즐길 수 있다.

박람회와 함께 즐기는 여수의 가을

여수 곳곳에서는 박람회와 연계한 문화 관광 행사도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국내외 섬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들이 참여해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논의한 '2026 국제 섬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소호요트마리나에서는 '제4회 거북선배 전국 요트대회'를 비롯해 '제14회 섬섬여수 그라폰도 자전거대회'가 개최되고,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는 '2026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와 '여수 섬 음식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박람회 기간 여수를 채운다.



하늘에서 본 낭도 일원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금오도 비렁길 트레킹'(상) /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하)

'전남광주 섬 반값 여행'으로 더 알뜰하게

섬박람회를 구석구석 즐겼다면 이번에는 '전남광주 섬 반값 여행'으로 눈을 돌려보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알리기 위해 '전남광주 섬 반값 여행'을 추진하고 나섰다. '섬 반값여행'은 해당 시군구 외 거주하는 관광객이 섬에서 사용한 운임, 숙박, 음식, 체험 등 관광 경비의 50%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목포, 여수, 고흥, 보성, 강진, 영광, 진도, 신안 등 8개 시군 16개 섬이 대상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전남광주관광통합플랫폼(JG TOUR)에서 여행 시작일 최소 5일 전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사업은 11월 4일까지 운영된다.

전국을 잇는 '섬박람회', 의회도 함께 뛰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특별시의회는 박람회의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개막을 앞두고 전국 시·도의회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송형곤 의장을 비롯해 강문성 원내대표,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 김진남 대변인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주요 시·도의회를 차례로 방문해 박람회의 개최 취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 축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섬박람회 홍보활동

박람회 이후까지 내다보는 사후 활용 계획

특별시의회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뿐 아니라 행사 이후까지 내다보며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 마련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대현 의원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사례를 지적하며, 섬박람회 역시 준비 단계부터 사후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람회 인프라를 전남의 해양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광 동력으로 활용하고, 섬박람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의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마무리를 향해 '순항 중'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10월 10일 기준 누적 방문객 수 1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관람객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한 조직위원회의 노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들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AI 다섬이 로봇 배치, 체험형 콘텐츠 및 야간 이벤트 대폭 확대, 어린이 대상 다섬이 열차 운행과 관람객 사연을 주제섬 미디어파사드에 띄우는 메시지 이벤트 등을 추진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남은 기간 더욱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운영으로 세계 최초 섬 박람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김종기 사무총장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이번 박람회는 단순히 전시장에서 섬을 보여주는 행사가 아닙니다. 실제 섬을 찾아 섬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 생태와 해양환경을 직접 경험하면서 섬이 가진 가치와 가능성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섬을 관광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지속가능성과 공존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세계적인 섬 분야 국제협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섬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누리집 입장권 예매

제1회 임시회 7. 1.(수) ~ 3.(금)
제2회 임시회 7. 13.(월) ~ 22.(수)
제3회 제1차 정례회 9. 8.(화) ~ 18.(금)

※ 더 자세한 의안 정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누리집(www.council.jeonnam-gwangju.go.kr) **'의안정보'**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례안 681

규칙안 19

주요 안건 처리현황

제1·2회 임시회, 제3회 제1차 정례회

총 764건

원안가결 604건, 수정가결 28건,
부결 2건, 철회 4건, 계류 126건

예산안 1

결산안 4

건의안 17

결의안 4

동의안 7

기타 31

위원회별 처리현황

본회의 382	의회운영위원회 2	기획재정위원회 32	행정소방위원회 40	AI반도체환경위원회 4	농수산위원회 74
에너지산업산림위원회 35	일자리경제위원회 22	안전건설위원회 21	통합도시교통위원회 7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6	보건복지위원회 92
교육위원회 32	시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3	교육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	윤리특별위원회 0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지원 상설 특별위원회 0	기본사회 상설 특별위원회 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장 송형곤)는 제1회 임시회부터 제3회 제1차 정례회까지 총 24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의회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시정·교육행정 업무보고와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처리 등 제1대 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제1회 임시회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열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을 추진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 운영 및 시청·교육청 소관 안건 총 330건을 처리했다. 특히 제1호 조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2회 임시회는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열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시정·교육행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과 정책·현안을 점검했다.

제3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열려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였다.

송형곤 의장은 "91명 의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의회"를 강조하며 초선과 다선,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의 경험과 전문성이 존중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지원 기능과 입법·예산 분석 역량을 강화해 수준 높은 정책의회를 구현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를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농수산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함께 챙기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상생과 균형의 의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견제와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건전성과 지역 간 균형을 주요 원칙으로 삼아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고 통합의 성과가 모든 지역과 시민의 삶에 고르게 닿도록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특별위원회와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 대응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요 발의 조례

제1·2회 임시회, 제3회 제1차 정례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일 2026.7.1. • **위원회 의결일** – • **본회의 의결일**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귀례 의원(광산구1, 더불어민주당) 등 39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의회 공인 조례



발의일 2026.7.1. • **위원회 의결일** – • **본회의 의결일** 2026.7.1.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규격·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의 적정한 관리와 공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허석진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 등 41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발의일 2026.7.8. • **위원회 의결일** 2026.7.15. • **본회의 의결일** 2026.7.2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지 보전, 농촌지역 소득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민호 의원(순천6, 더불어민주당) 등 50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발의일 2026.8.26. • **위원회 의결일** 2026.9.10. • **본회의 의결일** 2026.9.11.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여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최명수 의원(나주2, 더불어민주당) 등 44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일 2026.8.28. • **위원회 의결일** 2026.9.10. • **본회의 의결일** 2026.9.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홍기월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 등 11명

※ 더 자세한 의안 정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누리집(www.council.jeonnam-gwangju.go.kr) **'의안정보'**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

발의일 2026.8.28. • **위원회 의결일** 2026.9.10. • **본회의 의결일** 2026.9.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및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홍기월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 등 11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야간관광 진흥 조례안



발의일 2026.8.28. • **위원회 의결일** 2026.9.10. • **본회의 의결일** 2026.9.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야간관광 진흥을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홍기월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 등 11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일 2026.8.28. • **위원회 의결일** 2026.9.10. • **본회의 의결일** 2026.9.11.

금고 지정 평가항목 중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 ATM 설치 대수'의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하여 비교·평가하도록 함



박진한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등 54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발의일 2026.8.28. • **위원회 의결일** 2026.9.10. • **본회의 의결일** 2026.9.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전라남도 스마트관광 활성화 조례」와 「광주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를 통합하여 스마트관광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스마트관광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조석호 의원(북구3, 더불어민주당) 등 11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안일 2026.9.4. • **위원회 의결일** 2026.9.11. • **본회의 의결일** 2026.9.18.

종전 전라남도의 청년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에 맞게 확대·정비하고,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원대상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하여 상품개발·판로개척·경영역량강화·시설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



강성찬 의원(목포2, 더불어민주당) 등 50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보기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청원 및 시정 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홈페이지
(council.jeonnam-gwangju.go.kr
▶ 영상회의록)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정희선 의원(순천7, 더불어민주당)

학습 플랫폼부터 대학 연계 멘토링까지 명품 통합특별시를 위한 혁신 모델 구축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발맞추어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7년부터 온라인 학습플랫폼 '전남광주런' 구축, 지역 대학 연계 멘토링, 인재 육성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이석주 의원(여수6, 더불어민주당)

"다닐 학교가 없다!" 교육이 무너지면 통합특별시도 무너집니다



고등학교 예정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통학불편 및 청년 유출 우려가 크다. 신도심에는 고등학교를 이설·신설을 통해 과밀 및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구도심에는 이색 도서관 등 유동 인구 유입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서대현 의원(여수2, 더불어민주당)

여수해상경정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여수해상경정장을 통해 전국 규모의 경정대회와 해양스포츠 행사를 유치하고, 관광·숙박·음식·교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모정환 의원(함평, 더불어민주당)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으로 통합특별시 도농 상생 미래 열어야



인구감소와 고령화, 생활기반 약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회복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전면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류기준 의원(화순2, 더불어민주당)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농어촌이 산업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 온 만큼, 전남·광주 통합의 성과와 예산도 농어촌에 공정하게 돌아가야 하며, 통합으로 인해 농어업이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된다.

박형대 의원(장흥1,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재생에너지공사 설립하여 공공에너지사업으로 전환해야



재생에너지 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 중심의 발전사업 구조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공사 설립과 공립 태양광·풍력 사업 확대를 촉구한다.

이영훈 의원(광산구3, 더불어민주당)

통합의 성공은 신뢰에서 시작된다



전남광주상생발전위원회 상설 운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공정한 정책·예산 배분을 위해 균형발전지표를 도입하고, 통합균형발전기금을 조속히 설치해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박문옥 의원(목포3, 더불어민주당)

권역별 위상 보존과, 신산업 배치를 통한 '3축 균형발전'을 촉구



광주권 반도체 산업 유치에 따른 인력 유출을 우려해 조선과를 신설하고 전남도청 위상 보존 및 권역별 신산업 배치를 통한 '3축 균형발전'을 촉구한다.

문애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백서의 약속은 조직개편안에 제대로 반영되었나?



여성가족국 복원과 여성 전담 부서 신설, 성평등정책담당관의 기획·예산·인력 권한 강화가 필요하고 통합시 위상에 맞게 분절된 섬 정책을 총괄할 '섬정책관실' 신설을 제안한다.

강광석 의원(강진, 진보당)

‘광주는 반도체, 전남은 기본소득’ 이것이 상생



전남 농어촌이 더 이상 호남 내의 소외된 호남으로 머물지 않도록 특별시 차원의 공적 안전망 구축하고 2027년 전남광주 전체 군 지역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및 농어촌기본소득 국가재정부담률을 80%까지 상향해야 한다.

박수민 의원(북구1, 더불어민주당)

청년 문제의 본질은 ‘인구 수’가 아니라 ‘삶의 경로’로 바라보아야



청년은 정책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이자 다가올 미래를 지탱할 유일무이한 동력이다. 우리는 청년세대에 대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통합특별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박재선 의원(완도1, 더불어민주당)

‘치유의 섬’, 정작 주민은 아플 때 갈 곳이 없다



전국 최초의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섰지만, 섬 주민들은 공중보건의 감소와 잦은 결항으로 의료 공백에 놓여 있다. 병원선 운항 계획을 의료기관이 없는 섬 중심으로 재설계, 의사 순환 승선 체계구축, 현장 검진 관리가 필요하다.

이오숙 의원(비례, 국민의힘)

정치이념을 넘어 상생과 실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정부의 20조 원 규모 통합지원금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투자의 조속한 착공을 지원하고, 농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정치 이념을 넘은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

임용민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

후계농육성자금,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 부족해 선정되고도 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청년농들이 농지 계약·시설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이차보전 등 긴급 경영안정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조인호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 예산 5%의 한계, 이제는 미래 투자로 바꿔야



완도 전복 등 주요 수산업이 구조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나 해양수산 예산이 5%대에 불과하다. 단발성 시혜 지원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전략적인 미래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한춘옥 의원(순천2, 더불어민주당)

벼랑 끝 농촌, ‘식량안보 법률 제정’으로 골든타임을 지켜야



유가, 농자재, 인건비 등의 상승과 농업 예산 축소로 농민의 박탈감이 한계에 달했다. 농업을 시장 논리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식량을 국가 안보 자원으로 규정하는 ‘식량안보법안’ 조속 제정을 촉구한다.

양순봉 의원(나주3, 더불어민주당)

행정은 하나, 이제 관광의 길도 하나로 이어져야



전남·광주를 찾는 관광객의 상당수가 당일치기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통합에 맞춰 관광정책도 체류형 관광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강헌 의원(영광2,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전남의 농수산업을 가슴에 품고 있는가



전남 농수산업을 통합특별시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어촌에 재정과 정책 혜택을 보장하며 전남의 자원을 활용한 첨단산업의 이익도 공정하게 나누는 진정한 상생통합을 촉구한다.

이현명 의원(진도, 더불어민주당)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광역도로망 정책 전환 촉구



교통량·경제성 중심의 도로사업 기준에서 벗어나 응급의료·농수산물 유통 등 교통 취약지역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광역도로망 정책 전환과 투자를 촉구한다.

김수권 의원(장성1, 더불어민주당)

마을의 밥상, 그 뒤까지 살펴야 한다



농어촌 마을회관·경로당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고령 주민의 부담을 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강성찬 의원(목포2, 더불어민주당)

반복되는 기후재난, 지역 맞춤형 대응체계가 필요



일상화된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광주의 복합 지형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방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50년 빈도 확률강우량 기준을 시설 설계와 예산에 반영하고, 목포 원도심·해안 저지대에는 IoT 기반 실시간 침수대응망 구축을 제안한다.

정기성 의원(장성2, 더불어민주당)

보육 현장 사각지대로 인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잃어선 안돼



어린이집 영아 사망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육실 내 CCTV 사각지대 해소, 수면 관찰 매뉴얼 의무화, 교사 대 아동 비율 현실화 등 선제적인 보육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신연순 의원(비례, 진보당)

학교를 지탱하는 노동, 차별 없는 복지로 답해야



돌봄·상담·급식 등 학교 현장을 지탱하는 교육공무직이 장기간 근무해도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무원·지자체 공무직과 동등한 보장을 촉구한다.

전경선 의원(목포5, 더불어민주당)

3년으론 못 막는다! 쏠림을 막을 마지막 기회



광주·전남 통합 시 옛 광주권으로의 자본·인력 쏠림을 막기 위해 지역기업 보호 유예기간을 5~10년 이상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주연창 의원(여수4, 더불어민주당)

조직개편, 통합특별시의 균형을 위한 개편이어야



동부청사 조직 확대는 산업·경제 기능에 따른 합리적 분권이며, 동부권 성장과 시민 편의를 위해 조직·권한 강화와 청사 공간 확충을 함께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한귀례 의원(광산구1, 더불어민주당)

실증을 넘어 일상으로 광주형 자율주행, 시민이 체감하는 미래로 나아갈 때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한편 시민 안전과 수용성을 고려한 통합 행정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이귀순 의원(광산구4, 더불어민주당)

분권형 통합교육행정 및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인공지능, 미래차, 반도체 등 미래산업 확대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과도한 업무 편차 해소를 위한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본청·지원청·학교 간 권한을 재배분하는 로드맵 마련 필요하다.

임미란 의원(남구1, 더불어민주당)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언



웰니스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하며, 지역 대학과 의료계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거버넌스를 가동해야 하고 웰니스 실태조사, 5개년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대표 웰니스 박람회 추진이 필요하다.

박진한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광역적 기능에는 광역적 책임이 따라야



광역적 의료·문화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재정적 부담을 홀로 감당해 온 목포시의료원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통합특별시(광역) 운영체계 전환을 촉구한다.

이은정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반도체로 가는 물길, 농민의 목소리도 함께 놓이기를



반도체 산업 용수 공급을 위해 농업용수를 전환하는 정부 정책은 친환경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시기별, 지역별 물 공급에 대한 편차와 기후위기를 고려한 전략적 농업용수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숙희 의원(북구1, 더불어민주당)

저출생·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촉구



저출생 위기 극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광주지역 설립 검토, 민관협력 모델 도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촉구한다.

노소영 의원(남구1, 더불어민주당)

송암IC 평면교차로 전환, 선결과제 해결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40년 전 설치된 송암고가차도의 철거 및 평면교차로 전환을 검토하고, 차량 흐름과 보행권 개선을 위한 종합교통개선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문갑태 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

여수산단의 위기, '여수 첨단소재-광주 반도체'로 상생의 길 열어야



여수국가산단의 위기를 타개할 해법으로 여수산단 대개조 국가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을 요구하며, '광주 반도체와 여수 첨단소재를 잇는 초광역 밸류체인 구축'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경미 의원(광산구3, 진보당)

공공돌봄 필수인력 확충 및 생존권 보장



광주사회서비스원 안심돌봄센터 돌봄관리사들의 처우 개선 및 돌봄 관리사 시급제 폐지 및 월급제 시행, 공공 돌봄 필수인력 확대·적정배치 및 의회·집행부·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정례 간담회 제도화가 필요하다.

강정일 의원(광양2, 더불어민주당)

여수·광양항을 지키는 것은 특별시의 책무



정부의 4개 항만공사 통합이 여수·광양항의 산업 특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일방적 통합을 재검토하고, 정부가 통합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통합항만공사 본사는 광양항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서는 길이다.

하성동 의원(화순1, 더불어민주당)

통합특별시 출범, 공공시설부터 하나가 되어야



통합특별시 출범 취지에 맞게 영락공원 이용료·이용시간 등 지역에 따른 차등을 개선하고, 통합시민 누구나 공공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허석진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

국회도서관 광주분원은 문화인프라가 풍부한 중외공원 유치



국회도서관 광주분원의 최적 입지로 중외공원 일원을 제시하고, 문화예술 인프라와 접근성을 바탕으로 지식문화 거점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신민호 의원　　부위원장 노진성 의원
위　　원 김진남 의원, 고경애 의원, 김미연 의원, 박정선 의원, 오미섭 의원, 박상길 의원, 김수권 의원, 이현명 의원, 임용민 의원, 김장권 의원, 박준엽 의원, 박진한 의원, 장성해 의원





소관부서

의회사무처
시장 비서실
시장 보좌기관
교육감 비서실

주요안건

- **제1회 임시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26년 의회 기본 일정 협의의 건, 제1대 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등 4건
- **제2회 임시회**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
- **제2회 임시회 폐회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계획 및 경과보고 청취의건 등 2건
- **제3회 제1차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3건

현장활동

- 2026년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 개최(순천 일원, 7. 27. ~ 28.)
  지방직 부시장 인사청문회에 대비한 '인사청문회 기법' 특강, 동부청사 방문하여 사무공간 재배치 계획, 산사태 종합상황실 운영 현황, 직원 정착 애로사항 등 점검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순천6)이 지난 8월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1차 정기회'에서 전국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민호 회장은 전남과 광주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광역지자체 간 통합을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16개 시도의회의 힘을 하나로 모아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여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위 원 장 임형석 의원　　부위원장 박상길 의원
위　　원 김문수 의원, 최선국 의원, 심철의 의원, 박필순 의원, 서영미 의원, 문갑태 의원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본부
청년교육국
감사위원회
광역행정본부

주요안건

- **제1회 임시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2회 임시회**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조 재정지원 약속 이행 및 순증 재원보장 촉구 건의안 등 일반안건 12건
- **제3회 제1차 정례회**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7건

현장활동

- 제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지활동(남구 일원, 7. 21.)

글로벌 문화관광타운 양림권(근대역사문화) 방문

- 기간 : 2026. 7. 21.(화)
- 장소 : 양림동 거점예술문화센터
- 내용 : 글로벌 문화관광타운 양림권(근대역사문화)사업현황 청취 및 시찰



광주 실감콘텐츠큐브 운영 현황 청취

- 기간 : 2026. 7. 21.(화)
- 장소 : 광주 실감콘텐츠큐브
- 내용 : 광주 실감콘텐츠 지원사업 및 지역 콘텐츠 산업 생태계 현황 청취



통합의 힘,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게

균형 있는 정책과 재정으로 통합의 기틀을 단단하게

Q1 제1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초대 의회의 시작을 함께하게 된 소감과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맞은 의원님의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공동체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초대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함께하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통합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두 지역의 강점과 자원을 잘 연결해 시민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 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의정활동에 담겠습니다.

Q2 특히 의원님께서는 제1대 의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아 통합특별시의 주요 정책과 재정을 살피게 되셨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실 계획이신가요?

통합 초기인 만큼 조직과 재정, 정책을 안정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행정과 재정 낭비는 꼼꼼히 살피고, 꼭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세우겠습니다.

무엇보다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도시와 농산어촌, 모든 세대가 통합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과 재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Q3 전남과 광주의 통합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지역 간 균형발전이나 통합에 따른 갈등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시민과 도민이 삶의 변화를 얼마나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자리와 교통, 복지, 교육 등 생활이 실제로 좋아지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늘어나야 합니다.

특히 통합의 혜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서로 다른 강점을 새로운 성장의 힘으로 만들고,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고르게 듣겠습니다.

Q4 제1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기를 시작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특별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기틀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전남의 농수산업과 해양·관광, 광주의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등 각 지역의 강점을 잘 연결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임기를 마쳤을 때 특별시민께서 “통합 이후 우리 지역과 삶이 조금은 더 나아졌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임형석 위원장

박상길 부위원장


김문수 위원


최선국 위원


심철의 위원


박필순 위원


서영미 위원


문갑태 위원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공동체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제1대 통합특별시의회는 앞으로 통합의 방향을 세우고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가야 한다. 기획재정위원장은 두 지역의 강점을 하나로 연결하고, 통합의 성과가 시민들의 삶 속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초대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장

임형석

행정소방위원회

위 원 장 박성재 의원　　부위원장 박진한 의원
위　　원 윤명희 의원, 박문옥 의원, 박선준 의원, 이정운 의원, 이숙희 의원, 정희선 의원





소관부서

자치행정본부
전남·광주자치경찰위원회
대변인실
행복소통실
인사정책관
동부지역본부
민주인권평화국
전남인재개발원
광주인재교육원
소방본부

주요안건

- **제1회 임시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2회 임시회**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17건
- **제3회 제1차 정례회**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23건

현장활동

- 소방서 관할구역 내 사고대응 브리핑 및 훈련참관 등 현지활동(해남 일원, 7. 22. ~ 23.)
- 상임위 간담회(행정소방위원회 간담회장, 8. 11.)
  - 특별법 특례 발굴 추진상황 보고, 연찬회 계획 안내
- 집행부 간담회(행정소방위원회 간담회장, 8. 2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논의
- 행소위·기재위·집행부 간담회(전남청사 초의실, 8. 31.)
  - 조직개편(안) 현안 논의 등
- 전체의원 연찬회 중 현장방문(제주 일원, 9. 1. ~ 3.)
  - 함덕해수욕장 119수상구조대, 제주항일기념관
- 제27회 「전국119소방동요대회」 참관 및 광주지역 상임위 소관 기관 방문 등 현지활동(광주 일원, 9. 17.)

소방서 관할구역 내 사고대응 훈련참관 등 현장 방문

- 기간 : 2026. 7. 23.(목)
- 장소 :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삼산면 대흥사길 88-45)
- 내용 : 케이블카 이용객 증가 대비 시설 안전관리수준 점검, 사고발생 시 대응 역량 및 구조체계 점검 등



연찬회 행정소방위원회 관련 기관 현장 방문

- 기간 : 2026. 9. 2.(수) ~ 3.(목)
- 장소 : 함덕해수욕장(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525), 제주항일기념관(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03)
- 내용 : 함덕해수욕장 119수상구조대 및 제주항일기념관 현장 방문



행정소방위원회


박성재 위원장


박진한 부위원장


윤명희 위원


박문옥 위원


박선준 위원


이정운 위원


이숙희 위원


정희선 위원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의회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행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동시에 지역의 강점을 잘 연결해 통합의 효과를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행정소방위원장은 '연결'을 키워드로 행정과 지역, 사람과 정책을 잇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을 한 단계 높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행정소방위원장

박성재

전남과 광주를 잇겠습니다

안정적인 통합에서 더 안전한 일상까지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행정소방위원장으로서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행정소방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조직·인사, 소방 등 시민들의 일상과 가까운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합에 따른 행정체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자리 잡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또 전남과 광주의 강점을 잘 살려 통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통합특별법의 실효성 있는 특례와 정책과제를 찾아 제도화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Q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행정소방위원회가 맡은 역할과 책임도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가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으로 행정체계와 조직이 크게 달라진 만큼 조직개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인사 과정의 혼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전남과 광주의 서로 다른 조직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야 합니다. 조직이 안정돼야 시민들에게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Q3 행정소방위원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이번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위원장으로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소방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후위기와 대형 재난에 대비해 무인소방로봇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산불 비상소화장치와 험지펌프차 등 현장 대응장비도 확충해 신속한 대응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의원으로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을 실제로 바꾸는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Q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그 이유는?

'연결'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통합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정책과 정책을 잇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도시 인프라와 전남의 산업·농수산·관광자원을 잘 연결하고, 서로의 강점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의회 역시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을 하나의 방향으로 잇고, 그 힘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AI반도체환경위원회

위 원 장 이귀순 의원　　부위원장 오미섭 의원
위　　원 김정희 의원, 강원호 의원, 강광석 의원, 임종국 의원, 이석주 의원, 노진성 의원





소관부서

반도체산업지원실
AI모빌리티국
기후환경본부
국가AI컴퓨팅센터프로젝트추진단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안건

- **제1회 임시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2회 임시회**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제3회 제1차 정례회**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일반안건 3건

현장활동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 및 국가AI데이터센터 현장방문 (광주 일원, 7. 16.)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단지 및 국가AI데이터센터 현장방문

- 기간 : 2026. 7. 16.(목)
- 장소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단지(광주 군공항 부지), 국가AI데이터센터(북구 오룡동)
- 내용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단지 현장 확인 및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현황 점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단지(광주 군공항 부지) 현장방문



국가AI데이터센터 현장방문

#AI반도체환경위원회


이귀순 위원장


오미섭 부위원장


김정희 위원


강원호 위원


강광석 위원


임종국 위원


이석주 위원


노진성 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새로운 산업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게 만드는 일이다. AI반도체환경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을 꼼꼼히 살피고, 지역의 학생들이 배우고 취업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리 아이가 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는 생각이다.

AI반도체환경위원장

이귀순

산업과 인재, 함께 키우겠습니다

반도체 기반 다지고, 지역 청년의 미래를 열다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AI반도체환경위원장으로서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출범 초기 석 달이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그 그림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고 2030년 6월 메모리팹 양산이라는 일정까지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전력과 용수, 인허가 등 기업이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계획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지금 제가 가장 집중하는 일입니다.

Q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AI반도체환경위원회가 맡은 역할과 책임도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AI반도체환경위원회가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회는 기업과 행정 어느 한쪽의 편이 아니라, 필요한 일은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돕고 그 과정은 제대로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산업에서는 인재 양성이 중요합니다. 공장을 지어도 일할 사람이 지역에 없다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교육하고, 지역의 학생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산학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AI반도체환경위원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Q3 AI반도체환경위원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이번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라는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과 지역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이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 행정이 함께 움직이는 산학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싶습니다. 결국 가장 큰 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했다”는 시민들의 체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게를 지탱하는 주춧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통합을 선언하는 것은 하루면 가능하지만, 320만 시민이 통합의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회는 그 과정에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 역시 미래산업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위 원 장 류기준 의원　　부위원장 임용민 의원
위　　원 최미숙 의원, 최동익 의원, 김강헌 의원, 조인호 의원, 김명우 의원, 김영진 의원, 이행도 의원





소관부서

농수산본부(농축산식품분야)
농수산본부(해양수산분야)
경제창업국 농업동물 정책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학원

주요안건

- **제1회 임시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2회 임시회**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46건
- **제3회 제1차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21건

현장활동

- 지역 농축산업 현안 확인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현장 방문(화순군 일원, 7. 13. ~ 14.)
- 현안 간담회(농수산위원회 회의실, 8. 19.)
  - 농수산 분야 특별법 특례 발굴, 기본소득 조례 제정, 민물장어 생산자 협회 간담회
- 현안 간담회(농수산위원회 회의실, 9. 8.)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지역 현안 및 CPTPP 관련

농수산위원회 현지 활동

- 기간 : 2026. 7. 13.(월) ~ 14.(화)
- 장소 : 화순군 일원
- 내용 : 지역 축산 산업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현장방문



전체의원 연찬회 농수산위원회 현장 방문

- 기간 : 2026. 9. 2.(수) ~ 3.(목)
- 장소 : 제주도 동부농업기술센터, 해녀박물관
- 내용 : 제주도의 농어업 현황 확인 및 접목 기술 발견을 위한 벤치마킹



통합의 내일을 정책으로 만들다!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웃는 통합, 현장의 불안을 해소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농수산위원장으로서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통합 과정에서 농어업이 정책과 예산의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기반을 제대로 세우는 일입니다. 전남광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수산물 생산기지인 만큼, 통합 이후에도 농어업의 위상이 더욱 강화돼야하며 좋은 정책도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없습니다. 농수축산 분야의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농어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Q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농수산위원회가 맡은 역할과 책임도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농수산위원회가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의 성과가 도시와 농어촌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은 지금 고령화와 인구감소, 생산비 상승, 기후위기와 농수산물 가격 불안까지 여러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통합이라는 변화까지 겹치면서 현장에서는 "앞으로 농업과 수산업이 더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있습니다. 이때 농수산위원회가 바로 그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3 농수산위원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이번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농어업이 희생하지 않는 전남광주, 농어민의 노력과 희생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전남광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의 성장과 지역 발전 과정에서 농어업은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후재난이나 가격 폭락, 개방 확대와 같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부담을 농어민 개인에게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이번 임기 동안만큼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가 예산과 정책으로 제대로 보상받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 농어민이 일한 만큼 대우받고, 피해를 입었을 때 정당하게 보상받는 농어업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Q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민의 몫을 지키는 의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통합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느 지역과 어느 분야가 소외되고 있는지 의회가 제대로 따져야합니다. 특히 농어업처럼 그동안 지역을 지탱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의 몫은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집행부가 가는 방향을 따라가는 의회가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의회 그것이 제1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농어업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통합의 성과가 도시와 농어촌에 고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농어업이 정책과 예산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농수산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어민의 몫을 지키고, 통합의 내일을 정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류기준 위원장

임용민 부위원장


최미숙 위원


최동익 위원


김강현 위원


조인호 위원


김명우 위원


김영진 위원


이행도 위원



농수산위원장

류기준

에너지산업산림위원회

위 원 장 박원종 의원　　부위원장 김장권 의원
위　　원 강문성 의원, 신민호 의원, 손남일 의원, 이재창 의원, 최경미 의원, 고성석 의원





소관부서

에너지산업본부
통합행정국
산업혁신국
우주첨단소재국
산림정원국

주요안건

- **제1회 임시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2회 임시회**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일반안건 5건
- **제3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11건

현장활동

- 신재생에너지 보급 운영 현황점검 및 산림분야 우수사례 현지 시찰 (영광군 일원, 7. 22. ~ 23.)
- 신재생에너지 활용 우수사례 벤치마킹, 용암해수 산업 활용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9. 2.)

영광군 풍력발전·산림우수사업지 현장방문

- 기간 : 2026. 7. 22.(수) ~ 23.(목)
- 장소 : 영광군 일원
- 내용 : 신재생에너지 보급 운영 현황 점검 및 산림분야 우수사례 현지 시찰 등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용암해수산업 현장방문

- 기간 : 2026. 9. 2.(수)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내용 : 신재생에너지 활용 우수사례 벤치마킹, 용암해수 산업 활용 현장 방문



해불양수, 서로를 품어 더 큰 미래로

특별시의회, 통합과 상생의 균형의 길을 열다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에너지산업산림 위원장으로서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40년 만에 전남과 광주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과 조직을 합치는 것만으로 통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통합 이후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제도와 정책, 행정체계를 안정적이게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통합의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살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통합이라는 이유로 절차와 원칙이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시민의 삶과 행복을 가장 앞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Q2 에너지산업산림위원회가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생태자원을 갖고 있으며, 화학·철강·조선 등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해 온 뿌리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뿌리산업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소관 실·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시민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또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산업의 구조 변화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장을 이끌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Q3 에너지산업산림위원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이번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번 임기가 끝났을 때 시민 여러분께서 "통합하니 조금씩 좋아지고 있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지역의 에너지와 기존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또 통합 과정에서 어느 한 지역이라도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역이 각자의 강점과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변화의 가장 앞에서 뛰는 시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Q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그 이유는?

'해불양수(海不讓水), 바다는 어떤 물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공동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포용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역사와 환경, 이해관계를 불협화음으로 키우기보다 더 큰 가능성을 만드는 힘으로 바꿔야 합니다. 특별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통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에너지산업산림위원회


박원종 위원장

김장권 부위원장


강문성 위원

신민호 위원


손남일 위원

이재창 위원


최경미 위원

고성석 위원

전남과 광주가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됐다. 역사적인 통합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과 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통합의 변화를 삶 속에서 체감하도록 하는 일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에너지산업산림위원장은 지역 간 균형과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새로운 성장과 상생의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해불양수(海不讓水)'의 자세로 통합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에너지산업산림위원장

박원종

일자리경제위원회

위 원 장 진호건 의원　　부위원장 박정선 의원
위　　원 김성일 의원, 한춘옥 의원, 신연순 의원, 박　만 의원, 박수민 의원, 강성찬 의원





소관부서

노동일자리정책관
일자리투자유치국
경제창업국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안건

- **제1회 임시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 **제2회 임시회**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안 등 일반안건 12건
- **제3회 제1차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등 일반안건 10건

서울 창업 관련 기관 현장방문

- 기간 : 2026. 8. 26.(수)
- 장소 : 서울창업허브(공덕)
- 내용 : 창업 관련 기관 방문 및 창업 정책·동향 조사 등



제주 창업 관련 기관 현장방문

- 기간 : 2026. 9. 2.(수)
- 장소 : 제주더큰내일센터
- 내용 : 청년 취·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구도심 활성화 모색 등



전통시장 장보기·캠페인 추진

- 기간 : 2026. 9. 14.(월)
- 장소 : 북구 말바우시장
- 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및 전통시장 운영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



일자리경제위원회


진호건 위원장

박정선 부위원장


김성일 위원


한춘옥 위원


신연순 위원


박 만 위원


박수민 위원


강성찬 위원

전남과 광주의 통합이 주민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장은 달라진 제도와 지원기준을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청년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다져가고 있다. “통합의 성과는 주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는 그의 말처럼,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변화로 통합의 의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일자리경제위원장

진호건

통합의 성과 더 많은 기회, 더 단단한 지역경제

청년부터 소상공인까지, 지역경제의 변화를 만들다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일자리경제위원장으로서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남과 광주가 통합되면서 서로 다르게 운영돼 온 제도와 지원기준을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례마다 달랐던 청년 창업과 청년 소상공인 지원 연령기준을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통일해 지원의 공백을 줄였습니다.

공통 적용이 필요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통일하되, 산업구조와 도농 여건 등 지역별 특성은 맞춤형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기존 혜택이 줄거나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조례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Q2 일자리경제위원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이번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주민이 통합의 성과를 일자리와 소득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의 자원과 주민의 참여가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는 현장에서 들은 어려움이 실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임기가 끝났을 때 주민들께 “통합 이후 일할 기회가 넓어지고 지역경제가 더욱 단단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Q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그 이유는?

“통합의 성과를 주민의 일상으로 잇는 의회”입니다.

통합의 성과는 청년의 일자리, 소상공인의 매출, 노동자의 안전처럼 주민의 삶에서 확인돼야 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담고,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통합에 대한 기대가 지역경제의 활력과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위 원 장 강정일 의원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
위　　원 전경선 의원, 주연창 의원, 모정환 의원, 오행숙 의원, 하성동 의원, 강경윤 의원





소관부서

시민안전실
광역건설국
주택건축국
종합건설본부

주요안건

- **제1회 임시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 **제2회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등 7개 조례안 의결
- **제3회 제1차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국가지원 지방하천 법제화 촉구 건의안 등 2개 건의안 의결

현장활동

- 상임위 연찬회 및 현장방문(순천 및 광양시 일원, 7. 20. ~ 21.)
  - 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연찬, 대형사업장(포스코 광양제철소)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
- 종합건설본부·도시공사 소관 업무 현황 청취 및 현장 점검 등(광주 및 장성군 일원, 7. 28. ~ 29.)
- 상임위 간담회(안전건설위원회 간담회실, 8. 18.)
  - 상임위 소관 실·국·본부 조직개편 방향 등 6개 현안 논의
- 상임위 간담회(안전건설위원회 간담회실, 9. 8.)
  - 전남광주통합특별법 특례 발굴 논의 등
- 원자력 운영현장 및 애로사항 청취 등(영광군, 9. 15.)

소관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사업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

- 기간 : 2026. 7. 28.(화) ~ 29.(수) / 2일간
- 장소 : 서구·남구·광산구·장성군 일원
- 내용 : **종합건설본부 소관 사업 현장 점검**(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사업)
  광주도시공사 소관 사업 현장 점검(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사업,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원자력 운영현장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기간 : 2026. 9. 15.(화) / 1일간
- 장소 : 영광군(한빛원자력본부) 일원
- 내용 : 한빛원자력본부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민-관 협력사항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상황 점검 등



첫 발자국이 좋은 이정표가 되도록

현장에서 답 찾고, 지역의 목소리 고르게 담겠습니다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안전건설위원장으로서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관련 실·국과 구역이 넓어짐에 따라 안전·건설 관련 소관 업무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업무 파악을 위해 자치구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발 빠르게 현지활동을 준비해 지난 7월에 다녀왔습니다. 안전과 건설은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Q2 안전건설위원회가 맡은 역할과 책임도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상임위 차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화재, 시설물 붕괴,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은 대부분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는 만큼,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도심지역과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구분한 맞춤형 대응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인재(人災)와 자연재해 모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가 일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3 안전건설위원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이번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통합의회와 통합시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지금은 통합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 전남과 광주, 동부와 서부 지역 간에 나타났던 갈등은 통합 초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지역별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조정하기보다 각 지역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하고, 예산과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빠른 시일 내 극복하고 화합과 상생을 통해 통합의 시너지를 높이겠습니다. 초대 안전건설위원장으로서 지역 간 화합과 상생에 힘쓰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습니다.

Q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닐 암스트롱의 발자국'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첫발을 내디딘 만큼, 우리가 걷는 길이 다른 이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며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신중하고 소중합니다. 닐 암스트롱의 발자국이 인류에게 우주를 향한 꿈을 심어주었듯, 통합 이후 우리의 성과 역시 다른 시·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귀감이자 선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발자국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시너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안전건설위원회



강정일 위원장 **김미연** 부위원장



전경선 위원 **주연창** 위원



모정환 위원 **오행숙** 위원



하성동 위원 **강경윤** 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만큼 해야 할 일도,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안전건설위원회는 시민의 일상과 가까운 현장을 살피며 안전한 통합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서로의 목소리를 고르게 듣고 상생의 길을 찾겠다는 것이다. 안전건설위원장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첫걸음을 '닐 암스트롱의 발자국'에 빗대며 "우리의 발자국이 다른 지역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건설위원장

강정일

통합도시교통위원회

위 원 장 강수훈 의원　　부위원장 이현명 의원
위　　원 최명수 의원, 박형대 의원, 허석진 의원, 한귀례 의원, 노소영 의원, 장성해 의원





소관부서

광역도시국
통합교통국
통합공항국
도시철도건설본부
광주도시공사
광주교통공사

주요안건

- **제1회 임시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2회 임시회**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제3회 제1차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안 등 일반안건 6건

현장활동

-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 마을버스 현장방문(서구 나라버스 차고지 일원, 8. 21.)
- 광주도시철도 2호선 현장방문(서구 일원, 9. 15.)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 마을버스 현장방문

- 기간 : 2026. 8. 21.(금)
- 장소 : 서구 마을버스 차고지 일원(서구 풍서우로 292)
- 내용 :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 현장 의견 청취 등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현장방문

- 기간 : 2026. 9. 2.(수)
- 장소 :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제주시 용해로 55)
- 내용 : 센터 운영현황 및 주요 사업 청취,
  공항소음 피해·민원 현황 및 주민 지원 사례 확인 등



광주도시철도 2호선 현장방문

- 기간 : 2026. 9. 15.(화)
- 장소 : **[1단계]** 3공구 207정거장(서구 풍암동 423-50) 일원
  [2단계] 14공구 본선 8구간(동천동 11) 일원
- 내용 : 도시철도 2호선 1·2단계 사업 추진사항 보고·청취
  향후 공정별 예산 소요계획 확인 및 안전 점검 등



#통합도시교통위원회


강수훈 위원장


이현명 부위원장


최명수 위원


박형대 위원


허석진 위원


한귀례 위원


노소영 위원


장성해 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통합도시교통위원장은 광역교통망을 촘촘히 연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시민들이 통합의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도시교통위원장

강수훈

길을 잇고, 지역을 연결하다

교통을 연결해 광주와 전남을 더 가깝게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통합도시교통위원장으로서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시민들이 통합의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이 행정적으로 하나가 된 만큼, 교통도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연결해야 합니다.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주요 교통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한편, 도시공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교통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며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Q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통합도시교통위원회가 맡은 역할과 책임도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통합도시교통위원회가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의 핵심 과제는 지역 간 이동 격차를 줄이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며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광역철도와 광역버스 등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원도심과 신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지역별 발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살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하고, 현장의 문제를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Q3 통합도시교통위원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이번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광주특별시 내 곳곳을 더 가깝게 연결하고, 시민들이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이동하며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통망 확충으로 이동시간을 줄이고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도시재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리고 싶습니다. 교통은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고, 도시는 그 연결 속에서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만들어내는 기반입니다. 지난 4년간 산업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목소리를 교통·도시정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Q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그 이유는?

'연결'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와 철도로 지역을 잇고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출발점입니다. 나아가 지역별 특성을 살린 도시 발전을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이 이어질수록 지역이 가까워지고, 지역이 함께 발전할수록 통합의 가치도 커집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교통과 도시의 변화를 통해 통합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 원 장 홍기월 의원　　부위원장 김수권 의원
위　　원 서대현 의원, 이영순 의원, 김송식 의원, 양순봉 의원, 박재선 의원, 박민영 의원





소관부서

문화도시예술본부
관광국
체육국
종무실

주요안건

- **제1회 임시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2회 임시회**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반안건 2건
- **제3회 제1차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시각장애인축구장 유지보수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조례13건 등 일반안건 20건

현장활동

- 전남문화재단, 전남관광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관광공사 기관방문(7. 20.)
- 상임위 연찬회(장성군 일원, 8. 24. ~ 25.)
- 제16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행사 참석(광주 일원, 9. 4.)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식 참석(여수시 일원, 9. 5.)
- 2026 명량대첩축제 개막식 참석(여수시 일원, 9. 11.)



광주문화재단 방문(2026. 7. 20.)



전남문화재단 방문(2026. 7. 20.)


홍기월 위원장


김수권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


이영순 위원


김송식 위원


양순봉 위원


박재선 위원


박민영 위원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길을 열었다. 문화·관광·체육은 지역과 사람을 잇고 통합의 변화를 시민의 일상으로 가져오는 힘이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두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문화와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누구나 체육을 누릴 수 있는 균형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름을 잇고, 더 큰 가능성을 만드는 의회"를 향한 그의 구상과 각오를 들어봤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

홍기월

다름을 잇고, 더 큰 가능성으로

문화로 잇고, 관광으로 열며, 체육으로 하나되는 특별시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으로서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통합의 성과가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정책과 사업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각기 다른 강점과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두 지역의 사업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중복된 부분은 조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통합의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예산과 정책이 지역 간 균형을 이루도록 살피면서, 시민 누구나 통합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Q2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광주와 전남의 문화·관광·체육 자원을 하나의 경쟁력 있는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광주의 문화예술과 콘텐츠 역량에 전남의 역사·생태·해양·관광자원을 더한다면 국내외 관광객이 머물고 다시 찾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 역시 지역별 접근성과 균형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위원회는 지역별 특성을 존중하면서 정책과 예산의 중복을 조정하고, 통합으로 확대된 자원이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Q3 문화관광체육위원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이번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문화와 관광, 체육이 특정 지역이나 계층만의 혜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즐기고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넓히는 한편,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문화·체육 기반이 부족한 지역을 세심히 살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광주와 전남 어디에 살든 수준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Q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름을 잇고, 더 큰 가능성을 만드는 의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서로 다른 역사와 환경,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은 그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며 강점을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지역과 지역, 시민과 행정, 오늘의 과제와 내일의 가능성을 연결하고, 통합의 이익이 모든 지역과 시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 원 장 안평환 의원　　부위원장 고경애 의원
위　　원 임미란 의원, 이순화 의원, 문애준 의원, 이은정 의원, 윤민호 의원, 이오숙 의원





소관부서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
성평등정책관
돌봄복지국
시민건강국
가족정책국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주요안건

- **제1회 임시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2회 임시회**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등 일반안건 23건
- **제3회 제1차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47건

활동현황

-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호남권역재활병원 현장방문(7. 21.)
- 상임위 연찬회(담양군 일원, 7. 24.)

보건복지현장(호남권역재활병원) 현장방문

- 기간 : 2026. 7. 21.(화)
- 장소 : 호남권역재활병원 (북구 하서로 590)
- 내용 : 호남권역재활병원 현장 운영사항 청취 및 시설물 확인 등



우리복지관 현장방문

- 기간 : 2026. 9. 2.(수)
- 장소 : 우리복지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남길 40)
- 내용 : 발달장애인 중점 복지관 현장방문 및 프로그램 운영사항 청취 등



보건복지위원회


안평환 위원장


고경애 부위원장


임미란 위원


이순화 위원


문애준 위원


이은정 위원


윤민호 위원


이오숙 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의료·돌봄 분야에서도 통합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서로의 차이를 넘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들이 통합의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다.



보건복지위원장

안평환

둘이 하나 되어, 더 큰 미래로

함께 소통하고 전문성을 모아, 시민이 체감하는 보건·복지 통합으로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집중하는 것은 '함께하는 보건복지위원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위원장 혼자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이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함께 책임지고 성과를 만드는 '어깨동무 위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충분히 소통하며 운영 방향을 함께 정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의료·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보건복지위원회가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남과 광주의 보건·의료·복지·돌봄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통합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서비스를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분야별 격차를 꼼꼼히 살피고 단계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돌봄, 고령사회, 장애인, 공공보건, 여성, 외국인주민, 아동·청소년 등 7개 분야를 깊이 있게 살피겠습니다. 현장 점검을 강화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물론 정책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의료자원을 연계해 응급·분만·소아·중증의료 등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책임지는 체계를 만드는 데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Q3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이번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정당을 넘어 소통하고 협력하며 성과를 만드는 상임위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보건과 복지, 돌봄에는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전남과 광주의 보건·복지·의료·돌봄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지역별 현실을 정확히 진단해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고, 시민들이 통합 이후 달라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 커진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단순히 두 지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과 자원을 연결해 더 큰 힘과 기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광주의 도시 경쟁력과 전남의 넓은 지역 기반과 다양한 자원이 하나로 연결된다면 더 큰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더 큰 미래를 여는 것, 그것이 통합의 의미이자 의회가 만들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 원 장 최정훈 의원　　부위원장 박준엽 의원
위　　원 조석호 의원, 김진남 의원, 김건안 의원, 이영훈 의원, 서영배 의원, 정기성 의원, 박은정 의원





소관부서
교육청

주요안건
- **제1회 임시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2회 임시회**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건의안 1건
- **제3회 제1차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영재학교 선발 전형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31건

현장활동
- 교육청 청사 및 학교 현지 방문
  (교육청 전남 청사 및 광주 청사, 오룡중, 무학초, 광주제일고, 7. 14.)
- 전체의원 연찬회 중 현장방문(제주교육박물관, 9. 2.)

제주교육박물관 현지 방문

- 2026. 9. 2.(수)
- 장소 : 제주교육박물관
- 내용 : 제주 지역의 역사적 교육사료 보존·활용을 통한 교육박물관 운영 모범 사례 참관을 통한 전남광주 지역 교육문화·유산 관련 정책 수립 반영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역사유물기록원(가칭) 설립 관련 기관 벤치 마킹 및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연계방안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 원상회복 및 미전입금 전액 확보 촉구 기자회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9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서 삭감하기로 한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 원을 즉각 재편성하고, 미편성된 법정전입금을 올해 안에 전액 확보할 것과 향후 법정전입금이 정상적으로 확보되고 교육현장에 차질없이 투입될 때까지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교육위원회


최정훈 위원장


박준엽 부위원장


조석호 위원


김진남 위원


김건안 위원


이영훈 위원


서영배 위원


정기성 위원


박은정 위원

전남과 광주의 통합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정 통합을 넘어 교육격차를 줄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교육위원장은 도시와 농산어촌·도서지역의 교육 여건을 세심히 살피고, AI·디지털 교육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한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그의 구상과 각오를 들어봤다.



교육위원장

최정훈

교육의 격차를 넘어, 미래를 잇다

아이들의 배움이 달라지지 않도록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전남과 광주의 교육행정 통합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농산어촌·도서지역과 도시지역의 교육 여건 차이를 고려해,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혁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통합교육청의 조직·업무 운영과 학교 현장의 불편·행정 공백, 지역별 예산 및 교육자원 편중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금 제도 개편이 지역교육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교육청과 함께 대응하고, 첫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공동체가 통합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교육위원회가 맡은 역할과 책임도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광주 도심과 전남 농산어촌·도서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여 학생의 거주지에 따른 교육 기회 차이를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교육청의 조직·사무·예산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행정 공백과 재정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AI·반도체·에너지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에 대한 감시·견제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공동체 간 협력을 이끄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Q3 교육위원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이번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남과 광주의 교육자원을 연결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농산어촌·도서지역 학생에게도 양질의 교육·진로·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습니다. AI·디지털 교육환경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한 미래인재 양성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정책을 설계하는 참여형 교육자치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통합특별시교육청이 행정통합을 넘어 지역소멸과 교육격차에 대응하는 성공적인 교육자치 모델이 되도록 제도와 재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시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

위 원 장 한춘옥 의원　　부위원장 김건안 의원
위　　원 윤명희 의원, 임미란 의원, 주연창 의원, 손남일 의원, 박형대 의원, 모정환 의원, 이정운 의원, 이영순 의원, 고경애 의원, 이재창 의원, 양순봉 의원, 허석진 의원, 하성동 의원, 문애준 의원, 박상길 의원, 김수권 의원, 김영진 의원, 노소영 의원, 박은정 의원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무연찬회

- 기간 : 2026. 8. 13.(목) ~ 14.(금)
- 장소 : 순천시 일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13일부터 이틀간 순천에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열었다.

이번 연찬회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첫 예·결산 심사를 앞두고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 준비를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재정구조 통합 적용을 위한 예산 심층 심사기법과 협력적 의정활동을 위한 소통 교육 등 다채로운 전문 강의가 진행되었다.

한춘옥 위원장은 통합으로 22조 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게 된 만큼, 한정된 재원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삶에 닿는 예산,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만듭니다

'상생의 나침반'으로 균형 있는 살림살이 챙기겠습니다!



시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춘옥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도시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통합 이후 도시 규모가 커진 만큼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도 더욱 중요해졌다.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조 원에 가까운 살림을 꼼꼼히 살피며 시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예산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의회를 '상생의 나침반'에 비유하며 "지역 곳곳에 활력과 희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시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난 9월 2025년도 결산과 통합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은 단순히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살피는 것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세우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 역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는지 살피고,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통합특별시의 첫 살림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Q2 시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도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예산 규모는 2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된 만큼 기대도 크지만 책임도 막중합니다.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가 된 이유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예결특위는 23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고, 생활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Q3 시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이번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위원장으로서는 통합에 따른 외형적 성장 뒤에 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한 재정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사업의 성과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의원으로서는 시민들이 "통합되니 우리 삶이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예산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살피고, 특히 농촌지역이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간 균형도 챙기겠습니다.

Q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상생의 나침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남과 광주가 새로운 길을 시작한 만큼, 의회는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갈등을 조율하며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특히 예산에는 시정의 방향과 철학이 담기는 만큼 더욱 중요합니다.

시의회가 상생과 균형의 중심을 잡고, 320만 시민 모두에게 활력과 희망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박선준 의원　　부위원장 박민영 의원
위　　원 최선국 의원, 서대현 의원, 박필순 의원, 김미연 의원, 강경윤 의원, 한귀례 의원, 박정선 의원, 이숙희 의원, 정기성 의원, 김장권 의원, 정희선 의원, 이행도 의원, 노진성 의원





주요안건

- **제2회 임시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 **제3회 제1차정례회**
  - 2025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5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

- 기간 : 2026. 8. 13.(목) ~ 14.(금)
- 장소 : 고흥군 일원



고흥포두중학교 작은학교 운영 현황 견학 및 질문답변 등 현장활동



지방교육재정 특별강의



고흥해양수련원 운영 현황 견학 및 질문답변 등 현장활동

통합의 첫걸음, 교육 예산부터 꼼꼼하게

모든 아이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선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 세 달여를 맞은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도 통합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한창이다.
서로 다른 예산 편성과 회계 관행을 하나로 조율하고,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와 예산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살피며, 광주와 전남이 함께 나아가는
통합의 첫걸음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각각 써오던 예산 편성 방식이나 회계 처리 관행이 다르다 보니 이를 하나로 맞추는 작업에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통합 초기인 지금은 단순히 조직과 제도를 합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방식과 문화를 맞춰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 작업에 시간을 쏟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은 역할과 책임도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과제는 통합 과정에서 어느 지역의 학생도 예산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 차이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이 이뤄지는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위원회가 예산의 숫자만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Q3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이번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 하나하나가 실제 교실과 아이들에게 어떻게 쓰이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예산을 단순히 숫자로만 바라보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바꾸는 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세 번째 임기인 만큼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하나하나 챙기는 역할에 더 충실하려 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살피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Q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걸음'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전남과 광주가 통합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미숙한 부분도, 시행착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하나씩 맞춰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가 앞으로의 통합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합니다. 의회가 광주와 전남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조정하면서, 통합 과정에서 생기는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내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의회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 원 장 김강헌 의원　　부위원장 이영훈 의원
위　　원 박문옥 의원, 오행숙 의원, 김송식 의원, 강원호 의원, 서영미 의원, 김명우 의원, 문갑태 의원, 박재선 의원, 고성석 의원, 박수민 의원, 박준엽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기간 : 2026. 7. 3.(금) 12:00
- 장소 : 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월 3일 특별시의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초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통합특별시의회 출범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제1대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를 비롯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는 핵심 기구로서 의회의 청렴성과 신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청렴이 신뢰의 시작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의 틀, 통합특별시의 튼튼한 윤리 규범을 세우다



윤리특별위원장

김강헌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의회로 출범하면서 의원들의 책임과 역할도 한층 커졌다. 윤리특별위원회 역시 달라진 시대적 눈높이에 맞춰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때다. 윤리특별위원장은 문제가 발생한 뒤 징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위와 일탈을 미리 막는 '예방 중심의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의회의 출발점은 시민의 신뢰"라며 청렴과 상생을 바탕으로 믿음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남과 광주 두 의회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의원 정수와 의회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각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용되던 의원 윤리강령, 행동강령 조례, 징계 심사 기준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한층 더 엄격해진 시대적 눈높이를 반영하는 제도적 정비 작업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물리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320만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의 틀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Q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가 맡은 역할과 책임도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될 때 "우리 윤리특별위원회가 모이는 날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후 징계 중심의 '수동적 위원회'가 아닌, 비위와 일탈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능동적 위원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투명성 확보, 권한 남용 방지 등 의원들의 윤리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문제가 불거진 뒤 열리는 소극적 처벌 기구가 아닌 도덕적 방파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3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이번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위원장으로서의 목표는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가장 깨끗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평가받아 320만 시민에게 부끄러움 없고, 타 광역의회가 벤치마킹하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의 목표는 주민들과 맺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광주와 전남이 상생 발전하는 현장 중심의 민생 정책을 입안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남광주의 농업이 더욱 발전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그 이유는?

'청렴과 상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거대한 초광역 통합특별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바로 의원 개개인의 청렴과 도덕성에서 시작됩니다. 의회가 스스로를 맑게 비추는 거울처럼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지켜낼 때 비로소 시민의 지지를 얻고, 전남·광주의 상생과 번영이라는 대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지원 상설특별위원회

의회

위 원 장 김성일 의원　　부위원장 한귀례 의원
위　　원 최선국 의원, 모정환 의원, 이영순 의원, 허석진 의원, 하성동 의원, 최경미 의원, 이숙희 의원, 박상길 의원, 문갑태 의원, 이영훈 의원, 노소영 의원, 정기성 의원, 고성석 의원





반도체 특위 현안간담회

- 기간 : 2026. 8. 31.(월) 10:00
- 장소 : 특별시의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는 8월 31일 특별시의회에서 전남광주반도체산업지원단과 현안간담회를 열고, 산단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분야별 지원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과 인재·정주여건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역 정착형 인재 양성, 주거·교통 인프라 구축 등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등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지원 상설특별위원회

호남 미래의 가장 강력한 엔진, ‘반도체’

바람과 햇빛, 풍요의 대지 위에 글로벌 반도체의 새 지도를 그리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지원 상설특별위원장

김성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호남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릴 기회다. 반도체 상설특위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물과 전력 등 필수 인프라를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좋은 일자리를 키워 지역의 청년들이 고향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지원 상설특별위원장으로서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잡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의회가 첫발을 뗀 지난 두 달은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도약하기 위한 밑그림을 치열하게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필수 인프라의 ‘골든타임’을 잡는 것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이 지역의 미래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할 것 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하루 수십만 톤의 공업용수와 끊김 없는 대규모 전력이 없으면 단 하루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며 기존 수자원 연계, 하수 재이용수 공급망, 호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연결할 전력망 로드맵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인프라로 글로벌 기업들이 망설임 없이 통합특별시를 선택할 수 있게 발판을 단단히 놓겠습니다.

Q2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지원 상설특별위원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이번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특위 위원장으로서는 약 80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말로만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산업단지 착공과 주요 기업들의 확실한 투자 유치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원으로서 전남과 광주를 고루 발전시켜 우리 호남의 아들딸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 일자리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꼭 완성하고 싶습니다. 교육부터 취업, 주거까지 지역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제 의정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Q3 호남의 미래를 이끌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호남의 미래를 이끌 ‘가장 강력한 엔진’은 바로 반도체와 미래 첨단 산업입니다.”

전남은 풍요로운 대지와 바다로 대한민국의 식량을 책임져 왔고, 광주는 탄탄한 제조 역량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첨단 미래 신산업과 대규모 투자에서는 늘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번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은 그 묵은 아쉬움을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우리 의회가 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반도체와 미래 첨단 산업의 길을 활짝 열어젖힐 때, 의회는 단순한 대의 기관을 넘어 전남·광주의 경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뜨겁고 힘찬 엔진이 될 것입니다.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

위 원 장 박필순 의원　　부위원장 이은정 의원
위　　원 이재창 의원, 이순화 의원, 양순봉 의원, 강경윤 의원, 서영미 의원, 김명우 의원, 김수권 의원, 강광석 의원, 박재선 의원, 박은정 의원, 박　만 의원





기본사회 상설특위 제1차 회의

- 기간 : 2026. 7. 22.(수) 16:30
- 내용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는 7월 22일(수) 제2회 임시회 본회의 위원 선임에 이어 특위를 열고 박필순 위원장과 이은정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상설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기반 마련에 나섰다.

기본사회 상설특위 현안간담회

- 기간 : 2026. 9. 11.(금) 12:20
- 내용 : 운영계획 공유 및 의견수렴



기본사회 상설특위는 9월 11일 현안 간담회를 갖고 최근 기본사회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향후 활동방향을 확정지었다.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본사회!

전남광주를 하나로 잇는 '기본사회'의 새로운 길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장

박필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이제는 통합을 넘어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장은 농어촌기본소득과 돌봄 등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전남광주형 기본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도 하나로 모아 더 좋은 답을 만들어내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장으로서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남광주형 '기본사회'의 틀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회는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이 앞장서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과 햇빛·바람연금, 광주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처럼 이미 곳곳에서 기본사회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책들이 전남과 광주 전체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의 광역체계로 연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본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Q2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가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농어촌기본소득을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까지 어떻게 넓혀갈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득 지원뿐만 아니라 돌봄이나 생활 서비스처럼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복지정책도 통합특별시에 맞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특별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3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이번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사회 기본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기본사회 모델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기본사회가 무엇인지,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가 이름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용광로'라고 생각합니다.

용광로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가 뜨거운 열 속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과 광주의 서로 다른 생각과 지역의 목소리가 모이고, 때로는 의견이 부딪히더라도 그 과정을 잘 거쳐 더 좋은 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녹여 더 나은 전남광주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 원 장 임용민 의원　　부위원장 김장권 의원
위　　원 최동익 의원, 류기준 의원, 박형대 의원, 오행숙 의원, 이재창 의원, 하성동 의원, 강경윤 의원, 김명우 의원, 김수권 의원, 박준엽 의원, 노진성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 기간 : 2026. 9. 11.(금)
- 장소 : 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11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임용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장권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댐 유역 안전 점검과 동복댐 증고 등 현안을 검토하고 규제 개선 및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댐 유역의 상생, 주민과 함께 만드는 내일

주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상생의 답을 찾다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장

임용민

댐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오랜 규제와 불편이 따르기도 한다.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개발과 주민의 삶이 어느 한쪽도 희생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면서 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목표다.

Q1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반도체 특화단지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동복댐 증고와 기후대응댐 신설 과정에서 상류 지역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댐이 높아지거나 새로 만들어지면 일부 지역에서는 수몰이나 침수 위험이 생길 수 있고, 각종 규제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문이 없는 오래된 댐의 증고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발이 필요하더라도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규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2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잘 듣고 조율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댐 주변 주민들이 어떤 규제와 불편을 겪어왔는지 현장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주민 지원이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주민들과 함께 찾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Q3 앞으로 어떤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인가요?

댐 유역 문제는 개발과 주민의 삶이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관계기관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치겠습니다.

청년 특별위원회

위 원 장 박수민 의원　　부위원장 박진한 의원
위　　원 김진남 의원, 박원종 의원, 고성석 의원, 정희선 의원, 이행도 의원, 이석주 의원, 박준엽 의원, 박민영 의원, 장성해 의원, 노진성 의원, 강성찬 의원





청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기간 : 2026. 9. 18.(금)
- 장소 : 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는 9월 1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청년 특별위원회는 통합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권역간 청년정책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대외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의 삶에서 시작하는 통합의 변화

통합의 변화가 청년의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청년 특별위원장

박수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청년정책도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과 제도에 따라 달랐던 청년 지원정책을 하나로 조정하고, 통합 과정에서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청년 특별위원회는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교통·교육·문화·복지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통합의 변화를 청년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세 달여가 지났습니다. 청년 특별위원장으로서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인 만큼 서로 달랐던 전남과 광주의 제도와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정착시키고, 그 변화가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특별위원장으로서 청년정책이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는 청년 연령 기준부터 지원사업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특별시가 된 만큼 지역에 따라 지원과 기회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기존 정책의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통합특별시에 맞는 청년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Q2 청년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 특별위원회는 통합 이후 청년정책의 차이와 사각지대를 살피고, 청년에게 실제로 필요한 정책을 찾아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청년 문제는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교통·교육·문화·복지 등 여러 분야가 연결돼 있어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듣고, 필요한 정책과제를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연결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Q3 청년 특별위원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이번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 실제 변화를 만드는 것이 의원의 역할인 만큼, 이번 임기에는 시민들이 통합의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싶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취업과 주거, 부채 등의 어려움으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시민들이 "통합 이후 내 삶이 조금은 나아졌다"고 느낀다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Q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그 이유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가 된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만큼, 통합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살피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이라는 큰 변화를 시민에게 더 나은 변화로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ouncil

정책 토론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책토론회 〉

전경선 의원(목포5, 더불어민주당)
강광석 의원(강진, 진보당)
박형대 의원(장흥1, 진보당)
안평환 의원(북구1, 더불어민주당)
박문옥 의원(목포3, 더불어민주당)
노소영 의원(남구1, 더불어민주당)
박준엽 의원(담양1, 더불어민주당)
문애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이순화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김진남 의원(순천5, 더불어민주당)
최경미 의원(광산구3, 진보당)
홍기월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ouncil

전남·광주 영아보육 혁신포럼



전경선 의원(목포5, 더불어민주당)

전경선 의원(목포5, 더불어민주당)은 8월 13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전남광주 영아보육 혁신포럼'을 열어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 수립과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남 및 광주 지역의 가정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각계 보육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해 유보통합이라는 거대한 환경 변화 속에서 영아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 맞춤형 영유아교육·보육 선도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이어갔다.

전경선 의원은 우리 지역 영아보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100시대, 호남 반도체와 주민 생존권 정책토론회



강광석 의원(강진,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AI반도체환경위원회 강광석 의원(강진, 진보당)은 지난 8월 13일 시의회 전남청사에서 'RE100 시대, 호남 반도체와 주민 생존권 정책토론회'를 열어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과정에서의 재생에너지 원칙과 주민 생존권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순형 동신대 교수의 재생에너지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한 전력 수급 안정성 및 이익 환류 구조 제안, 권혁주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농촌 희생 중심 송전탑 정책 전환 촉구, 김종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반도체 산단 추진에 따른 환경 피해 및 부작용 조명 필요성 등이 공유되었다. 또한 이재철 시 에너지정책과장, 김진수 반도체산단지원단 시설지원팀장, 홍광희 한전 계통영향평가부장이 참여해 행정과 전력 계통 측면의 대안을 모색했다.

강광석 의원은 "노동하기 좋은 전남광주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시민주권의 실현"이라며 "반도체 산단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려되는 모든 의제를 공론의 테이블에 올려 이번 토론회가 상생의 첫 시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토론회

광주 군공항 분산배치와 반도체 산단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



박형대 의원(장흥1, 진보당)

박형대 의원(장흥1, 진보당)은 8월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광주 군공항 분산배치와 반도체 산단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군공항 기능의 분산배치 가능성과 반도체 산업단지 조기 착공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한미 간 협의 필요성, 군공항 기능의 분산·통합을 통한 군사시설 재편,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치유·보상 대책,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주도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박형대 의원은 "정부는 임시적인 땜질식 분산배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평화 구축의 관점에서 영구적 분산배치와 통폐합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군공항 이전사업 역시 완전한 국가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진단 및 개선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안평환 의원(북구1, 더불어민주당)

안평환 의원(북구1, 더불어민주당)은 8월 18일 광주광역시노인회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진단하고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추진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장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들이 단일임금 보장, 복리후생 증진, 소규모·24시간 운영시설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안평환 의원은 "종사자 처우개선은 복지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소규모 시설의 열악한 여건과 잦은 이직 문제를 개선하고, 광주·전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처우의 상향평준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책 토론회

전남광주통합특별법 학술대회



박문옥 의원(목포3, 더불어민주당)

박문옥 의원(목포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1일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별관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법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과제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특별법 특례의 실효성을 분석해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와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거버넌스학회가 주관했으며, 학계와 연구기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문옥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특별법에 규정된 특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데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칠석동 고싸움놀이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노소영 의원(남구1, 더불어민주당)

노소영 의원(남구1, 더불어민주당)은 8월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전통의 에너지, 미래를 잇다-광주 칠석 고싸움놀이의 현대적 재해석과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가무형유산 제33호인 광주 칠석 고싸움놀이의 지속 가능한 전승과 문화관광 자원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전승자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부족, 상설 콘텐츠 및 시설 부족 등의 과제를 진단하고, 원형 전승과 함께 미디어아트·AR·VR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접목하는 방안, 칠석마을 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확보 및 전승 참여자 지원 확대 등이 제시됐다.

노소영 의원은 "칠석 고싸움놀이가 축제 기간에만 주목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관광·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 청년 전승인력 양성을 구체화해 미래세대와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토론회

전남광주 교육자치 정책토론회



박준엽 의원(담양1, 더불어민주당)

박준엽 의원(담양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31일 전일빌딩 245 시민마루에서 '전남광주 교육자치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소규모 학교 혁신과 지역사회 교육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발제는 ▲교육자치를 위한 소규모 학교의 혁신과 지원 ▲소규모 학교 혁신을 위한 지역사회학교 제안 ▲현장 교사가 바라본 교육혁신선도지역의 가능성과 과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거버넌스의 방향을 주제로 총 4개 세션이 진행됐다.

박준엽 의원은 "소규모 학교 위기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전남광주의 교육 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 정책 발전 방안 토론회



문애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문애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9월 7일 전일빌딩 245에서 '성평등 정책 발전 방안 토론회'을 열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에서 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이 예정됨에 따라 해당 조직의 역할과 권한을 살펴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모색하였다.

이현숙 제주특별자치도 초대 성평등정책관과 임혜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의 발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사례를 바탕으로 성평등 전담조직의 전문성과 정책 조정 역량 확보를 논의하였다.

문애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정책담당관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전남광주의 성평등 정책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 토론회

2026 장애인권 정책토론회
무연고 장애인의 존엄한 장례



이순화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이순화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9월 8일 14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 장애인권 정책토론회: 무연고 장애인의 존엄한 장례'를 열어 무연고 장애인의 임종과 그 이후의 공공관리체계와 처리절차 등을 논의하였다.

이순화 의원은 "무연고 장애인이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는 이유로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지키고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공동체의 논의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왜성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정책토론회



김진남 의원(순천5, 더불어민주당)

김진남 의원(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9월 15일 순천대학교에서 '순천왜성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순천왜성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보존·관리체계 구축, 단계적인 토지매입과 체계적인 정비, 학술조사 확대, 역 사교육 및 평화의 상징 공간 조성,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진남 의원은 "순천왜성은 침략의 흔적이라는 이유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아픈 역사이기에 오히려 온전히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유산"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국가사적 승격에 필요한 과제를 현실적으로 짚어보고, 시민과 학생들이 일상에서 역사를 배우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책 토론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범죄피해자 지원 실태 및 과제



최경미 의원(광산구3, 진보당)

최경미 의원(광산구3, 진보당)은 9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범죄피해자 지원 실태 및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어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의 통합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범죄 발생 직후부터 수사·재판과 치료, 생계 회복까지의 통합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단기간 지원에 그치지 않는 장기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경미 의원은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울수 있는 촘촘한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책박물관 추진방안 2차 세미나



홍기월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

홍기월(동구1,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은 9월 17일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실에서 '전남광주 책박물관 추진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새로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을 살피고, 시민들이 오랜 기간 수집해온 책과 각종 기록물을 어떻게 공공의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홍기월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조선대학교 김현의 교수와 전남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이여진 이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장우권 교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황풍년 사회문화수석, 책마을해리 이대건 촌장, 출판도시문화재단 장동성 사무처장, 하형정 작가 등이 참여했다.

홍기월 위원장은 "시민들이 평생 모아온 소중한 책과 자료가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공공 문화자산으로 보존·활용해야 한다"며 "책을 넘어 전남광주의 지식과 역사, 시민의 기억이 살아 숨 쉬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오늘 나온 의견들이 조례와 예산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의정 조례웹툰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시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가 반도체 전략투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투자, 인프라 지원에 대한 투자,
인프라 지원에 대한 심의, 협의 및 조정







투자 요청 및 인프라 지원을 위한
단일 창구 / 인프라 지원



데이터 보안 강화 및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



PHOTO NEWS 열린의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더 많은 소식은
홈페이지(council.jeonnam-gwangju.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의회사무처 간부 상견례 2026. 7. 1.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1호 결재_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체계 구축
2026. 7. 1.

#5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2026. 7. 10.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개원식 2026. 7. 13.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개원식 2026. 7. 13.

#8



성명서 발표_호남을 향한 조직적 혐오 이제는 멈춰야 2026. 7. 13.

#9



아름다운가게 축하 화분 기부 전달식 2026. 7. 22.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지역 의원 기자회견_
직접교부세와 재정제도 개선 촉구 2026. 7. 22.

#11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대응역량 강화 집중교육 2026. 8. 11.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특별시 현안 정책 간담회 2026. 8. 14.

#13



경상남도 호우 피해지역 지원 성금 전달식 2026. 8. 26.

#14



경상남도 호우 피해지역 수해 복구 현장지원 2026. 8. 26.

#15



충청권 광역연합의회 상생 협력 간담회 2026. 8. 28.

#16



제주4·3평화공원 합동참배 2026. 9. 1.

#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협약식 2026. 9. 1.

#18



2026년 전체의원 연찬회 2026. 9. 1.

#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류협력 업무협약식 2026. 9. 6.

#20



제1기 의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 2026. 9. 8.

#21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_국회소통관 2026. 9. 9.

#22



의정구호 공모전 시상식 2026. 9. 11.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청렴교육 2026. 9. 11.

#24



2026회계연도 전반기 시청결산검사위원 위촉식 2026. 9. 11.

#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면담 2026. 9. 15.

#26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_본회의장 2026. 9. 18.

#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충청북도의회 상생 협력 간담회 2026. 9. 18.

#28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_원광녹동효도마을 2026. 9. 22.

#29



통합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발굴 중간보고회 2026. 9. 28.

하나된 힘, 더큰 미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 조례안은 반도체 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위원회를 통해
기업 투자유치와 기반시설 확충, 행·재정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합특별시의회 1호 법안'인 이 조례는 무엇일까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ㄱㄹㅂ ㅂㄷㅊ ㅈㄹㅌㅈ 지원에 관한 조례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힌트! 133p를 참고하세요!

참여하기!

이벤트에 참여하는 독자 여러분의 이름, 이메일, 연락처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yang0638@korea.kr 기간 2026.11.10. 까지 문의 062-613-5056

소식지는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You Quiz 초성퀴즈에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10명을 추첨해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20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연간회의 운영계획

연간 총 회의 일수 / 5회, 86일
(정례회 2회 56일, 임시회 3회 30일)

7월

제1회 임시회 7.1.(수)~3.(금)
- **제1대 의회 원 구성**
-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 등

8월

제2회 임시회 7.13.(월)~22.(수)
- 업무보고, 안건처리

9월

제3회 제1차 정례회 9.8.(화)~18.(금)
-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10월

제4회 임시회 10.7.(수)~23.(금)
-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
- 안건처리, 상임위 활동

11~12월

제5회 제2차 정례회 11.2.(월)~12.16.(수)
- 2026년 회계연도 전반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 2027년 예산안
-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활동

※ 본 계획안은 의회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시의회 견학·방청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는 특별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시민 여러분과 지방자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견학·방청을 적극 환영합니다.

견학 신청방법(홈페이지 접속)

- 시의회 홈페이지 접속(**council.jeonnam-gwangju.go.kr**)
- 시작페이지 상단 '시민참여' 탭 선택
- **'의회견학'** 클릭
- **'견학신청서'** 다운
- 이메일(jungms8115@korea.kr) 전송
- 유선(061-286-8334)으로 연락

방청안내

- 시의회 홈페이지 접속(**council.jeonnam-gwangju.go.kr**)
- 시작페이지 상단 **'시민참여'** 탭 선택
- **'방청안내'** 클릭
- **'방청신청서'** 다운
- 팩스(061-286-8490) 또는 (jungms8115@korea.kr)로 전송
- 유선(061-286-8334)으로 연락

문의처

견학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061-286-8334
방청	**본회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061-286-8334
	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61-286-8039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61-286-8077
		행정소방전문위원실	061-286-8228
		AI반도체환경전문위원실	062-613-5075
		농수산전문위원실	061-286-8218
		에너지산업산림전문위원실	061-286-8213
		일자리경제전문위원실	061-286-8068
		안전건설전문위원실	061-286-8209
		통합도시교통전문위원실	062-613-5093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062-613-5063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62-613-5083
		교육전문위원실	061-286-8240
		특별전문위원실	061-286-8096
		교육특별전문위원실	061-286-8281

(2026. 10. 12.일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1대

의장



송형곤 고흥1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조석호 북구3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김문수 신안1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화번호

구 분	전 화
의장실	061-286-8005
부의장실	062-613-5025
부의장실	061-286-8020
의회운영위원장	061-286-8030
기획재정위원장	061-286-8070
행정소방위원장	061-286-8230
AI반도체환경위원장	062-613-5011
농수산위원장	061-286-8080
에너지산업산림위원장	061-286-8040
일자리경제위원장	061-286-8062
안전건설위원장	061-286-8050
통합도시교통위원장	062-613-5012
문화관광체육위원장	062-613-5013
보건복지위원장	062-613-5010
교육위원장	061-286-8418
시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061-286-8423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061-286-8275

의회운영위원회



신민호 위원장 순천6
노진성 부위원장 동구2
김진남 위원 순천5
고경애 위원 서구3



김미연 위원 순천4
박정선 위원 비례
오미섭 위원 서구2
박상길 위원 남구2



김수권 위원 장성1
이현명 위원 진도
임용민 위원 보성1
김장권 위원 광양4



박준엽 위원 담양1
박진한 위원 비례
장성해 위원 비례

기획재정위원회



임형석 위원장 광양1
박상길 부위원장 남구2
김문수 위원 신안1
최선국 위원 목포1



심철의 위원 서구4
박필순 위원 광산구3
서영미 위원 비례
문갑태 위원 여수5

행정소방위원회



박성재 위원장 해남2
박진한 부위원장 비례
윤명희 위원 장흥2
박문옥 위원 목포3



박선준 위원 고흥2
이정운 위원 무안2
이숙희 위원 북구1
정희선 위원 순천7

AI반도체환경위원회



이귀순 위원장 광산구4
오미섭 부위원장 서구2
김정희 위원 순천3
강원호 위원 남구1



강광석 위원 강진
임종국 위원 북구2
이석주 위원 여수6
노진성 위원 동구2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위원장 화순2
임용민 부위원장 보성1
최미숙 위원 신안2
최동익 위원 여수1



김강헌 위원 영광2
조인호 위원 완도2
김명우 위원 담양2



김영진 위원 순천8
이행도 위원 영암1

에너지산업산림위원회



박원종 위원장 영광1
김장권 부위원장 광양4
강문성 위원 여수3
신민호 위원 순천6



손남일 위원 영암2
이재창 위원 나주1
최경미 위원 광산구3
고성석 위원 무안1

일자리경제위원회



진호건 위원장 곡성
박정선 부위원장 비례
김성일 위원 해남1
한춘옥 위원 순천2



신연순 위원 비례
박 만 위원 비례
박수민 위원 북구1
강성찬 위원 목포2

안전건설위원회



강정일 위원장 광양2
김미연 부위원장 순천4
전경선 위원 목포5
주연창 위원 여수4



모정환 위원 함평
오행숙 위원 순천1
하성동 위원 화순1
강경윤 위원 보성2

통합도시교통위원회



강수훈 위원장 서구1
이현명 부위원장 진도
최명수 위원 나주2
박형대 위원 장흥1



허석진 위원 북구2
한귀례 위원 광산구1
노소영 위원 남구1
장성해 위원 비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기월 위원장 동구1
김수권 부위원장 장성1
서대현 위원 여수2
이영순 위원 광산구2



김송식 위원 구례
양순봉 위원 나주3
박재선 위원 완도1
박민영 위원 비례

보건복지위원회



안평환 위원장 북구1
고경애 부위원장 서구3
임미란 위원 남구1
이순화 위원 비례
문애준 위원 비례
이은정 위원 비례
윤민호 위원 북구2
이오숙 위원 비례

교육위원회



최정훈 위원장 목포4
박준엽 부위원장 담양1
조석호 위원 북구3



김진남 위원 순천5
김건안 위원 북구1
이영훈 위원 광산구3



서영배 위원 광양3
정기성 위원 장성2
박은정 위원 비례

하나된 힘, 더큰 미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한춘옥**
부위원장 **김건안**
위 원 윤명희, 임미란, 주연창, 손남일, 박형대, 모정환, 이정운, 이영순, 고경애, 이재창, 양순봉, 허석진, 하성동, 문애준, 박상길, 김수권, 김영진, 노소영, 박은정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박선준** 부위원장 **박민영**
위 원 최선국, 서대현, 박필순, 김미연, 강경윤, 한귀례, 박정선, 이숙희, 정기성, 김장권, 정희선, 이행도, 노진성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지원 상설특별위원회

위 원 장 **김성일** 부위원장 **한귀례**
위 원 최선국, 모정환, 이영순, 허석진, 하성동, 최경미, 이숙희, 박상길, 문갑태, 이영훈, 노소영, 정기성, 고성석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 원 장 **임용민** 부위원장 **김장권**
위 원 최동익, 류기준, 박형대, 오행숙, 이재창, 하성동, 강경윤, 김명우, 김수권, 박준엽, 노진성

윤리특별위원회

위 원 장 **김강헌** 부위원장 **이영훈**
위 원 박문옥, 오행숙, 김송식, 강원호, 서영미, 김명우, 문갑태, 박재선, 고성석, 박수민, 박준엽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

위 원 장 **박필순** 부위원장 **이은정**
위 원 이재창, 이순화, 양순봉, 강경윤, 서영미, 김명우, 김수권, 강광석, 박재선, 박은정, 박 만

청년 특별위원회

위 원 장 **박수민** 부위원장 **박진한**
위 원 김진남, 박원종, 고성석, 정희선, 이행도, 이석주, 박준엽, 박민영, 장성해, 노진성, 강성찬